



우리, 예술로 살아요.



예술로사는 세상

www.artloan.kr

삶을 예술로, 예술을 삶으로.

예술인을 위한 용자 서비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시작!

2019년 6월 24일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는 2020년부터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사업이 본격 운용됩니다.



Cover Story

'예술인'과 '복지'라는 어렵지만 꼭 필요한 화두를 붙들고 숨 가쁘게 달려온 7년이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앞으로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이 예술인답게 삶을 영위하며 작품으로 우리 사회를 밝힐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Volume. 32

발행 2019년 10월 31일
발행인 정희섭
편집인 정철
발행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전화 02-3668-0200
홈페이지 www.kawf.kr
기획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책기획팀
편집·디자인 오즈커뮤니케이션 02-515-3681
비매품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02	프롤로그	K.A.W.F 7th
04	하이라이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7년의 기록
06	예술인 특집1	예술인 복지, 지역으로 확장되다
08	예술인 특집2	지역에서도 문화예술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꿈같은 날이 어서 오기를
12	예술인 특집3	지역문화의 시대, 예술인 복지의 시대로
14	에필로그	예술인 복지, 서울·경기 수도권을 넘어 지역으로
16	재단사업 인터뷰1	떡벌이 걱정 없이 그림 그릴 수 있어 행복합니다
20	재단사업 인터뷰2	2019 장애+비장애 협업 프로젝트
26	인터뷰	휠체어무용의 시작을 열고, 미래를 꿈꾸다
30	칼럼1_장애예술인	'걸어'를 창작의 자원으로 삼는다면
32	칼럼2_장애예술인	대한민국에서 장애예술인으로 살아가기
34	칼럼3_원로예술인	다시 태어나도 피어로 인생
36	칼럼4_원로예술인	예술인에게 복지란 무엇인가
38	칼럼5_여성예술인	여성+엄마+배우=나
40	예술인 레터	소설가 구보 씨의 반나절
42	예술인 앞과 뒤	얼굴에 표현해내는 예술의 세계
46	공간 탐방	예쁜 봄날 같은 예.봄.
52	KAWF 레시피	신메뉴를 소개합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54	KAWF 데스크	누구나 문턱 없는 예술을 더 멀리, 더 넓게 펼쳐세요
56	KAWF 상담실	
58	KAWF News	
60	예술인패스	



7th

이 모든 예술 장르의
예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 문학
- 미술
- 사진
- 건축
- 무용
- 음악
- 국악
- 연극
- 영화
- 연예
- 만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K.A.W.F



예술인이 예술을 지속 가능할 수 있게 한
노력의 시간,
예술인의 예술인에 의한 예술인을 위한
7년이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7년의 기록

지난 2012년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올해로 설립 7주년을 맞이하였다. '예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7년간의 행보를 기록해본다.

- 09.30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개소
- 10.10-11.18 예술인복지 정책토론회 개최(총 4회)

2013

2012 ~

- 11.18 『예술인 복지법』 시행
- 11.19 한국예술인복지재단(KAWF) 설립



2014

- 02.24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오픈
- 04.15 반디 돌봄센터(시간제 보육 지원) 개소



- 01.29 기획재정부 기타 공공기관 지정
- 04.13 2015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2015



- 03.14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시간제 보육 지원) 개소
- 09.22 '예술을 통한 혁신적 가치 창출' 국제세미나 개최
- 12.28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개소

2017

- 06.24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 시작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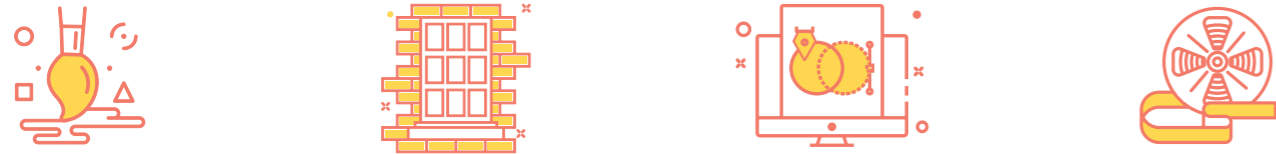
2016

- 09.21 예술인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총 15개 광역/기초 문화재단) 시작
- 11.2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 예술인 확대

2018

- 06.20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 개소
- 10.24 예술인복지금고 설립추진위원회 출범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예술,
예술을 풍요롭게 하는 복지

예술인 복지, 지역으로 확장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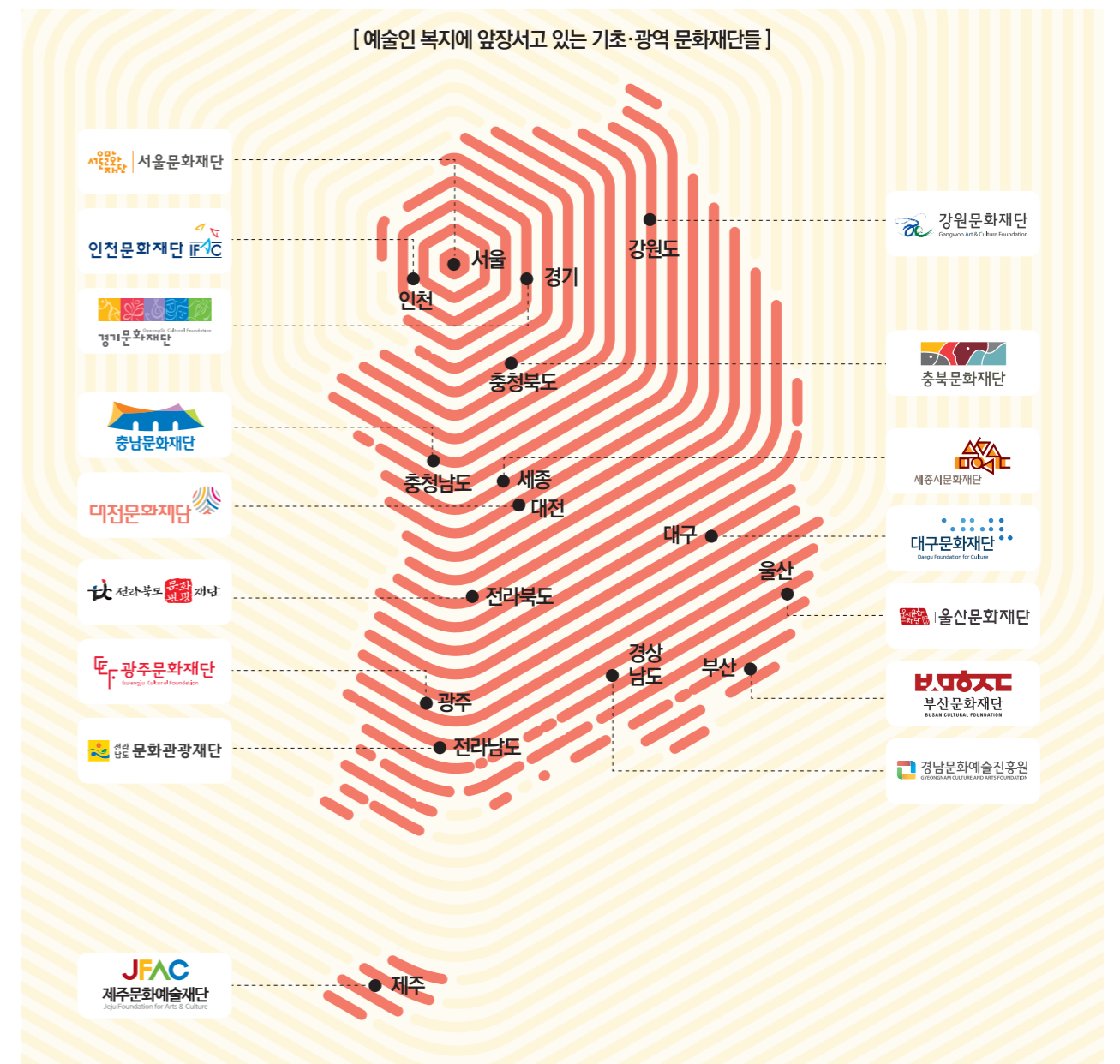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예술인 복지법』 제3조 제2항-



서울·수도권 중심의 예술문화 활동과 그에 따른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이 지역문화분권시대에 맞춰 전국으로 확장되고 있다. 기초·광역 문화재단을 비롯해 지자체별 예술인복지센터를 마련하는 등, 자유롭게 예술 및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과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예술에 한계와 격차가 있을 수 없듯,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현실 가능한 복지 또한 지역적 한계와 격차 없이 지원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술인 복지에 앞장서고 있는 기초·광역 문화재단들]



지역에서도 문화예술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꿈같은 날이 어서 오기를



지역문화분권의 시대를 맞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지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예술인 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협력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최근 개소한 경남예술인복지센터 김우태 센터장을 통해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예술인들의 실태와 예술인 복지를 위해 경남지역은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들어보았다.

글 김우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복지센터장, 시인

요즘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공동체 복원과 관계 있는 마을살리기 사업을 하는 쪽이거나 교육공동체 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나브로 듣는 말이다. 정말 공감하는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말은 들을수록 싫증이 나기 는커녕 신기하게도 마음에 동심원의 물결을 일으키며 먼 곳으로 번져가는 묘한 느낌을 받는다. 이 말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찾아보았더니 아프리카 속담이라는 설도 있고, 북미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에서 전래했다는 설도 있다. 아무려면 어쩐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구전되어 온 속담을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 한정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이 말이야말로 전 지구적 상식에 속하는, 금과옥조 같은 말이 아닐까.

이 말을 몇 번 되뇌다 보면, 어느새 한 아이를 키워내는 데 이럴진대 '한 예술가를 길러내는 데는 얼마나 많은 마을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하기에 이른다. 한 예술가를 키워내는 데는 마을의 범위를 벗어나 도시나 한 지방, 또는 국가와 같은 아주 큰 단위가 필요할지 모른다. 질문의 요지는 아이나 예술가를 길러내는데 공히 공동체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예술가들을 생각하면 사정이 너무 심각하다. 예술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세상은 예술가를 왜 불행하게 만드는가. 그럼에도 그들은 왜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도 정말 버거운데, 한 걸음 더 들어가 '예술가'라는 말 앞에 '지역'이라는 딱지를 붙여보면 참담함은 순식간에 현기증을 불러일으킨다. 지역에서 예술가로 살아가는 소위 '지역 예술가'는 이렇듯 '모순과 소외'라는 이중 고통 속에서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린 지 오래다. 과연 예술가 한 명을 키워내는데 얼마나 많은 마을이 필요할까.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난 지역 예술인들의 복지 실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는 참담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다. 예술인이 예술활동으로 얻는 수입이 연평균 1,281만 원으로, 응답자 72.7%가 월수입 10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예술인 57.4%가 전업 예술인으로 종사하고 있고, 이 중 76%가 소득이 일정치 않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연평균 수입이 500만 원 미만이라고 밝힌 예술가도 27.4%에 달하고, 29%는 수입이 아예 없다고 한다.

예술인들의 사회보험(고용/산재보험)은 20% 중반대로 매우 낮아 사회안전망에서조차 벗어나 있었다. 이는 예술인의 절대다수가 생존의 벼랑 끝에 매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술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입문 이후 1년 이상 예술활동을 포기한 상태인 '예술경력 단절' 경험자는 23.9%로, 2015년 15.9% 보다 훨씬 늘었다. 예술활동을 포기하게 된 이유로는 예술활동 수입 부족(68.2%)이 절대적이었다. 나머지는 질병, 출산·육아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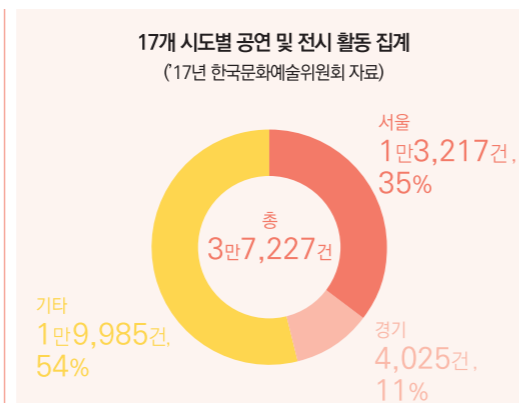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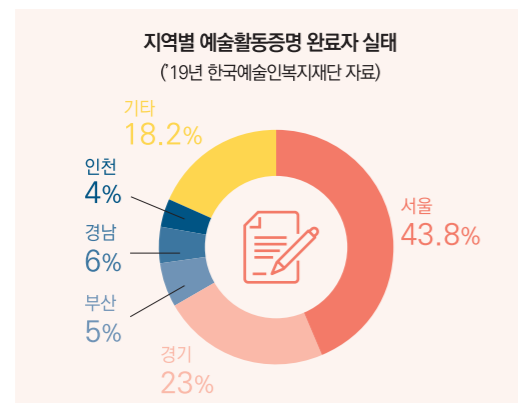
예술인이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예술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예술활동증명을 받아야 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사람은 모두 6만6,527명. 서울 43.8%, 경기 23%이다. 부산, 경남, 인천이 비교적 높은 4~6%이고 나머지 지역은 1~2%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예술인 복지혜택도 10명 중 7명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편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복지 측면에서 예술인 실태조사가 보여준 어두운 현실은 지역 간 문화예술 및 콘텐츠 지원 불균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지자체 중심의 예술인 복지정책 필요

최근 국정조사에서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대안신당)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콘텐츠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 지원의 대다수가 서울과 경기 두 지역에 편중되어 지역 소외 현상이 뚜렷했다. 문화예술 분야 공모사업의 경우 71.9%가 서울·경기에, 콘텐츠 분야는 이보다 심한 79%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그나마 부산이 4.3%로 가장 많고, 대부분 1~2%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연과 전시 같은 문화예술 활동도 지역 불균형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간하는 <문예연감>의 17개 시도별 공연 및 전시 활동 집계를 보면, 2017년 총 3만7,227건 중 서울이 1만3,217건으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경기 지역이 4,025건이었다. 문화예술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과 경기 지역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이처럼 과도한 수도권 쏠림현상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지방 잠재력을 원천적으로 고갈시킨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쉽게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빈곤한 문화 인프라는 청년들을 지역에서 떠나게 만들고 지방대학의 가치를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한다. 경남발전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경상남도 청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5년 이내 경남을 떠나겠다'고 밝힌 사람이 응답자의 33.4%였고, 이유는 일자리(43.5%)가 1위, 문화 수준(28.5%)이 2위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 전략과 함께 세심한 문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예술인 복지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서민정책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제도를 시행 중이며,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 중이란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의 수도권 편중을 시정하지 않고, '문화 균형발전'을 이룰 특단의 대책이 없는 '문화강국'이란 구호도 공염불이 될 것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역에서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술은 맘껏 복지는 한껏, 경남형 예술인 복지에 대한 노력

경남에서도 『예술인 복지법』 영향을 받아 지난해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가 제정되었고, 올해 예술인 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예술인복지센터가 생겼다. 지난 8월 21일 김경수 도지사가 참석한 개소식은 '예술은 맘껏, 복지는 한껏'이란 슬로건 아래 '경남'을 예술인 복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만들자는 결의로 뜨거웠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현재 마산과 진주 2곳의 센터에 6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창작준비금 지원, 청년예술인 파견사업, 창작자금 대출, 교육 역량강화 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경남예술인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경남형 예술인 복지정책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청년예술인 파견사업의 경우는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예술인 일자리 창출의 한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예술인복지센터가 생기면서 지역 문화예술계에 크고 작은 변화들도 생겨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예술인들이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스스로 찾기 위해 깨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혜택도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생활 안정과 창작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요구도 다양해지고 적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 1년 사이 500여 명 정도 늘어 3,500명에 달한다. 예술인복지센터를 찾는 예술인도 많아졌다. 올해 들어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민원을 해결한 건수가 2,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과 예술인 복지 확대는 한 궤를 이룬다. 이제 법적·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본다. 지금부터는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 예술가들이 더 노력해야 할 때이다. 우리 모두 지역에서도 문화예술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고 복지국가란 점을 깊이 인식하고, 다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



'예술은 맘껏 복지는 한껏'이란 슬로건으로 지난 8월 21일,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한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경남예술인복지센터가 문을 열었다.



청년예술인 파견지원사업에 선발된 예술인들이 복지센터 회의실에서 협업프로젝트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문화의 시대, 예술인 복지의 시대로



『예술인 복지법』 시행과 함께 수도권으로 편중되었던 예술인 복지가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지방문화분권시대를 맞아 지역예술인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기초·광역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김지원 사무처장을 통해 지역의 예술인 복지 현황과 노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글 김지원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사무처장,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단장

『예술인 복지법』 제정과 함께 시작된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고 그 이듬해 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되면서 국가 중심의 문화진흥과 육성을 펼치기 시작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문화국가로 향한 법과 제도, 정책이 예술지원에서 문화향유권 증진,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영역으로까지 개념적 확장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우리나라는 문화기본법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 예술인복지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저작권법 등이 제정되면서 명실공히 문화 관련 법체계가 마무리되었다. 특히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복지자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할 『예술인 복지법』 제정과 함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면서 예술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복지지원이 시작되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문화비전 2030 - 사람이 있는 문화」에서 ‘문화예술인·종사자 지위의 권리 보장’이 9대 핵심의제에 포함되었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추진과제가 제안되었다. 총론적으로 문화예술인의 생존 기반인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복지제도를 확충해 보편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지역 예술인 복지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현황

서울·경기 등의 수도권에 아닌 지역 차원에서 예술인 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곳이라면 부산광역시를 꼽을 수 있다. 부산지역에서는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된 이듬해인 2013년,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술인 실태조사 및 예술인복지정책수립’ 연구용역을 토대로 ‘2020 부산예술인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부산광역시 3개 분야 19개 중점과제		
예술인 사회 안전망 강화	예술인 직업 권익 신장	예술인 생활 활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예술인복지코디네이터 운영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운영 부산예술인 실태조사 실시 예술인 100인 라운드테이블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계약서 정착 청년예술가 인턴지원 우리동네예술가 양성·지원 예술인파견지원 참여기관 매칭 지원 청년예술가 일자리 박람회 빈집프로젝트 <반딧불이>사업 추진 예술인 예장공간 운영 예술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자녀보육 지원 예술인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예술인 휴·안심프로그램 운영 예술인 법률자문단 운영 부산예술인 명예의전당 추진 예술인패스 확대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4명의 직원과 약 9억 원의 예산으로 부산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눈여겨볼 과제는 반딧불이(빈집활용) 사업이다. 지역에 유휴 공간을 발굴·확보하여 예술인의 창작 공간 및 시민문화 향유 공간으로 개보수 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심 공동화로 인해 급증하는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예술 공간 및 시민 향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올 상반기까지 11호점이 조성돼 43명의 입주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2016-2020년 / 3개 분야 19개 중점과제 / 총 11,180백만 원 예산투입 예정이고,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2017년 2월에 개소한 부산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를 위한 지역 문화재단들의 다양한 노력과 계획

전라북도도는 2016년 9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 1월에 ‘전라북도 예술인복지증진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전북의 특징은 예술인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의제를 도출해 ‘전북 예술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는 점이다. 2017년 4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은행이 협약을 맺어 연 50억의 예산으로 예술활동증명을 한 예술인들에게 1년 거치 7년 상환 및 이자차액을 보전(1.5% 고정지원)하는 지원정책이다. 현재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는 2명의 전담인력이 예술인 교육지원, 최초전시 지원, 온라인 수장고 구축 등의 창작지원체제 구축과 함께 자문 서비스 컨설팅 데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8월에 개소한 경남예술인복지센터는 광역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창원에 우선 설립하고 서부권 예술인복지 사업을 위해 진주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자치, 문화분권의 가치가 확산되고 있는 ‘지역문화의 시대’라고 하지만 예술인 복지지원사업 수혜를 받는 예술인들은 여전히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다. 지역편중을 해소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예술인복지재단과 광역문화재단이 이제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문화행정 전달체계를 재구성할 시기가 도래했다. 향후 예술인 복지 지역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업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역재단에 ‘예술인복지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창작지원과 예술인 복지지원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본다. ▲

예술인 복지, 서울·경기 수도권을 넘어 지역으로



지역문화분권시대, 지자체별 예술인 복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기초·광역 문화재단들이 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한 서울·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예술인 복지가 지방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역 재단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지역으로 확장되는 예술인 복지, 그동안 기초·광역 문화재단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펼쳐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경기문화재단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경기도 예술인상담센터 운영

www.ggcf.kr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경기도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총 6억 원 규모로 도내에 거주하는 청년예술인 200명을 선정, 개인별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속적 창작활동 보장을 위해 '경기도 예술인상담센터'도 운영,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피해 상담부터 계약, 저작권, 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예술인복지센터 오픈 & 예술인 역량강화지원사업 실시

www.gcaf.or.kr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국내 최초로 예술인 복지 향상을 위한 '경남예술인복지센터'를 오픈, 예술 관련 업무는 물론 공간 무료활용 및 장비사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새로 오픈한 경남예술인복지센터에서는 청년예술인과 기업의 협업프로젝트인 '청년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비롯해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창작자금 대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인 역량 강화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

전국 최초 예술인 특례보증지원사업 & 찾아가는 사업안내 서비스 실시

www.jbaw.or.kr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에서는 전국 최초로 예술인 특례보증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공공자원을 활용한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제 1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 대출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활동증명 신청이 어려운 원로예술인 및 인터넷 취약계층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안내서비스(설명회, 대행신청)인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실시 중이다.

광주문화재단

예술인 복지지원 창구 개설 & 교육 워크숍·1:1 맞춤형 복지컨설팅 시행

www.gjcf.or.kr



광주문화재단에서는 지난해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광주지역 내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예술인 복지지원 서비스(예술활동증명, 창작지원금 안내 등) 특. 특. 특.'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 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스스로' 복지서비스인 교육 워크숍·복지 컨설팅트를 마련, 1:1 맞춤형 복지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부산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 다양한 예술인 복지 프로그램 진행

www.bsfc.or.kr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부산문화재단에서는 예술인의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 복지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코디네이터 운영을 비롯해 예술인 일자리 파견지원, 예술인이 입주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반딧불이(빈집활용) 사업 및 예술인과 기업 매칭 프로그램도 실시 중이다. 이외에 휴-안심 프로젝트, 신문고 등 지역 예술인 복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펼치고 있다.

떡벌이 걱정 없이 그림 그릴 수 있어 행복합니다

원로예술인 이 블라지미르 니콜라예위츠

활동기회가 적은 원로예술인들을 위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창작 준비금지원 사업-창작디딤돌'을 펼치고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년 이 지원사업의 상반기 수혜자 중에는 조금 특별한 예술인이 있다. 러시아 사할린동포 3세인 이(李) 블라지미르 니콜라예위츠(86) 화가다. 고령에도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그를 만나, 창작활동과 노후 삶에 대해 들어보았다.

글 편집부 / 사진 최지원

어려웠던 시절, 배고픔의 대명사였던 예술

"떡벌이가 안된다고 반대가 심했지요. 그림 그리는 일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수학이나 노어(러시아어)를 배우라고. 그래서 어릴 적엔 어머니 아버지가 노동 나갈 때 몰래몰래 그렸어요." 베갯모에 밑그림을 그려 수를 잘 놓으셨던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은 거 같다는 원로예술인은 어눌하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말로 이어간다. 러시아 사할린동포 3세 화가인 이 블라지미르 니콜라예위츠에게 그림은 그렇게 어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룩한 삶이자 꿈이었다.

어려웠던 시절 배고픔의 대명사였던 예술, 그 예술인의 길을 가고자 했던 이 블라지미르 니콜라예위츠 작가. 사할린사범대학 역사학부를 졸업하고 모스크바예술대학에서는 미술을 전공, 우리말 법벌이의 다른 표현인 떡벌이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게 되었다고 한다. 소학교 교사 시절 만난 지금의 부인(이수자)과 결혼하면서 한 집안의 가장이자 생활인,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러시아 연해주 한인 이주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해온 화가의 가족사 또한 고통과 시련의 이민사였다.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연해주로 이주해왔지만 소비에트 공화국 주권 아래 한인(고려인)들이 강제추방되면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까지 오게 되었다고. 이곳에서 강제이주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던 부친(故 이영식)이 흔적도 없이 끌려가면서 가족의 이민사는 다시 시작되었다.





1933년 연해주에서 태어나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사할린, 하바롭스크까지 순탄치 않았던 이주의 삶 속에서도 작가의 그림에는 어촌의 풍경, 진펄의 갈대, 푸르른 산, 가지가 무성한 잣나무, 하늘색 바다, 풍경이 아름다운 절벽 등이 표현되어 있었다. 일상의 아픔과 고통, 시련을 아름다운 자연으로 표현하면서 예술로 승화시키지 않았을까.

영주 귀국 후 시작된 예술인으로서의 삶

사할린에서 소학교 미술교사를 시작으로 하바롭스크의 중학교에서 조각과 미술을 가르치며 퇴임하기까지, 56년간 교육자로 살아온 작가의 삶. 그에게 교직은 생활의 방편인 동시에 화가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원천이었으리라. 그림을 그리기 위해 필요한 물감, 붓, 캔버스 등 어느 것 하나도 그

냥 얻을 수 없는 창작 도구들은 예술가들에게 크나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소비에트 공화국 시절에는 공훈 화가가 아니고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없었어요. 지금처럼 이런 캔버스가 없어서 처음 내가 유화를 시작했을 때는 판지나 종이, 천에 그렸습니다.” 작가는 판지에 그려진 자신의 첫 유화 작품을 보여주며 그림 설명을 이어간다. 힘들었던 체제, 넉넉하지 못했던 시절에도 그림과 예술 창작에 쏟았던 그의 열정과 노력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오랫동안 선친이 정치적 동기로 근거 없이 탄압받은 것에 대한 명예가 회복되면서 부모님의 나라이자 자신의 뿌리이기도 한 대한민국에 영주 귀국할 수 있게 된 화가 이 블라지미르 니콜라예위츠 부부. 지난 2013년 12월 경기도 파주에 정착, 오



로지 창작활동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한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랄 게 없이 너무 좋아요. 그림 그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옆에서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화가 남편을 대신해 활동을 보조하고 있는, 부인 이수자 씨가 “한 번에 300만 원씩 지원받았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예요”를 덧붙이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거듭 고마움을 표한다.

파주 정착 후 파주미술협회에 가입하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알게 되었고, 지난 2015년 첫 지원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 블라지미르 니콜라예위츠 작가. 파주 인근 풍경 좋은 곳으로 스케치를 나가거나 인천, 부산 등으로 떠난 여행의 자취는 작품으로 남겨졌다. 이런 작품들은 매년 전시회를 통해 선보이고 있다.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서 협회 회원들이 함께하는 것 말고, 개인 전람회도 4번이나 했어요.” 그림과 전시회 이야기에 작가의 눈빛은 생생한 예술가의 그것으로 돌아간다. 그림에 몰두할 때면 불려도 대답 없고 배고픔도 잊는다는 부인의 말이 과장은 아닌 듯싶다.

창작준비금으로 새롭게 꾸는 꿈

작품활동을 지속하면서 전시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작가는 올해 두 차례의 전시가 남아있다고 한다. 정기적인 파주미술협회전과 한·중화가들의 교류전이다. 특히 협회전에는 파주의 지정학적 의미를 담은 ‘평화의 다리’라는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이 블라지미르 니콜라예위츠

1933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태어났으며 사할린 사범대학과 모스크바예술대학을 졸업했다. 미술교사이자 화가로 활동했으며 2013년 대한민국으로 영주 귀국. 파주미술협회 회원으로 정기 그룹전을 비롯해 현재까지 네 차례의 개인전을 가졌다.

거실 벽면을 장식한 작품들과 방 한켠에 모아놓은 유화 작품들을 보며 예술인에게 물리적 나이는 오히려 창작의 폭을 넓혀 그것을 담아낼 수 있게 하는 그릇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러시아, 사할린, 한국의 경치가 다 달라요. 한국에서도 파주 다르고, 부산도 달라요. 각기 다른 경치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영주 귀국해서 자신의 그림 풍이 러시아에 있을 때보다 색채가 더 환해지고 고운(좋은 예쁜) 데만 그리게 된다는 원로예술인, 이 블라지미르 니콜라예위츠 작가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아직도 꿈꾸고, 꿈을 갖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노부부가 함께 미술 재료를 사러 가는 곳이자 크고 작은 미술관과 전시공간이 있는 인사동에서, 그의 표현대로 ‘개인 전람회’를 열고 싶은 게 앞으로의 꿈이라고 한다.

한 폭의 그림에는 예술가의 영감과 기술적 표현능력이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물감과 붓, 그림을 담아낼 캔버스’라는 물리적 도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 예술인들의 창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이다. 행복하게도 고국에서 그 사업의 수혜자가 되어 더 없는 행운이라는 이 블라지미르 니콜라예위츠의 꿈이 요원하지 않기를 응원해본다. ▲



예술은 경계를 넘고, 예술路(로)는 장애를 넘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
-2019 장애+비장애 협업 프로젝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는 매년 1,000여 명의 예술가들이 200여 개의 기업·기관과 만나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의미있는 사업이다. 특히나 기획사업이 신설된 올해, 예술인들 스스로 팀을 이뤄 기획사업에 참여한 장애+비장애 협업 프로젝트가 화제다. 자폐장애인 한부열 작가를 포함한 6명의 예술인과 1명의 기업 담당자가 함께한 프로젝트의 일환인 파티 현장을 찾아가 경계를 넘는 예술, 장애를 넘는 예술路(로) 사업에 대해 들어보았다.

글 편집부 / 사진 박성희

'2019 예술인 파견지원-예술路(로)' 기획사업의 일환인 장애+비장애 협업 프로젝트

지난 9월 28일,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리장별 작가의 작업장이자 갤러리인 에스파스드폴(espace de paul)에서는 페타컴퍼니의 아티스트 콜라보 브랜드 ARTTY와 함께하는 새로운 형식의 행사가 펼쳐졌다. '아티타임 파티타임(Artty time Party time)'이라는 타이틀로 펼쳐진 이 행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예술인 파견지원-예술路(로)'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이 함께하는 협업 프로젝트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신문지와 30cm자, 볼펜을 이용해 작업해온 자폐 장애인 한부열 작가와 프로젝트를 기획·제안한 리더예술인 김지수 금속공예가를 비롯해 정경화 전통채색화 작가, 그리고 ARTTY의 황교준 디자이너, 대중음악가 김명규 드러머, 문춘선 공예가, 이태용 미디어 아티스트가 참여하고 있다.

예술인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서 직업적 역량을 개발하고 기업·기관·지역 등과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사업 중 하나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 이번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재단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고 장애·비장애인의 경계를 넘

은 예술교류로 다양한 영감이 깃든 창작물이 세상 속에서 공감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6월에 처음 시작된 이 협업 프로젝트를 위해 서로 다른 분야의 예술인들이 한 달에 7~8차례 만나 작품회의와 개발 활동 등을 펼쳐왔다. 참여작가들의 작품 전시와 퍼포먼스로 이루어진 이번 파티는 협업의 초기 단계를 정리하고 보여주고 기록하자는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다. 협업 활동계획서 제출과 승인을 통해 팀이 갖춰지고, 협업 팀이 지금까지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는지에 대한 기록이자, 첫 공식행사이기도 하다. 이번 협업 프로젝트 행사는 주인공인 6인의 예술가와 기업 담당자, 그리고 가족, 동료 예술인,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오프닝 전시를 위해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들을 선보였다. 특히 콜라보 브랜드 ARTTY는 한부열 작가의 사인을 이용한 티셔츠, 가방 등을 현장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김지수 리더예술인의 진행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한부열 작가와 김명규 드러머의 협업 영상물 상영과 한부열 작가의 라이브드로잉 퍼포먼스로 작지만 뜻깊은 '아티타임 파티타임'을 가졌다.



'2019 장애+비장애 협업 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되어 짱~ 합니다
-장애예술인, 한부열 작가

#HanBooYeol #Let'sgowithHBY #한부열with30cm #라이브드로잉 #작가 #안아줘요 #짱~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더없는 영광이죠. 또래와의 교류가 없고 예술적 공감을 나누기도 힘든 상황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죠!" 2019년 장애+비장애 협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부열 작가의 어머니, 임경신 씨 말이다. 언어를 통한 소통이 어려운 한부열 작가를 대신해 인터뷰에 참여한 작가 어머니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다. 자폐장애 예술가인 아들이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그림에 몰두하는 것이 한편으로 안타까웠는데, 다행히 팀 작업에 흥미를 느껴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에 지켜보는 이로서도 부듯하다고 덧붙인다.

건축이나 공작물을 제도하듯 30cm 자를 이용해 그려낸 독특한 구성의 작품들 속에는 말로써 다 표현하지 못한 작가의 감성과 위트가 묻어난다. 이러한 작가만의 독특한 화풍을 놓치지 않았던 김지수 리더예술인의 요청으로 합류하게 되었다는 한부열 작가. 그의 참여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이자 남다른 시간이었다고 한다. '한국미술협회 회원, 전업작가협회 회원, 그림책작가, 라이브드로잉 퍼포먼스 1호 작가', 한부열 작가 앞에 붙는 닉네임이다. 특히 발달장애인 최초로 한국미술협회 정식회원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장애, 비장애'라는 경계 없이 예술로 하나 될 수 있고, 기업과의 협업으로 시너지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명실공히 기성 작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작가 개인의 명성과 자부심뿐만 아니라 그를 지켜본 많은 이들에게 감동이



자 반향이었다.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걸까, 아니면 내면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이었을까. 작가는 손가락을 맞대고 '짱~'하며 상대와 소통하는 몸짓을 취한다. 한부열 작가의 시그니처가 된 '짱~'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의 울림이자 예술적 감성을 깨우는 시그널로 다가온다. 장애예술인이지만 여러 차례의 개인전과 해외전시 등 참여예술인 중 가장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 한부열 작가, 앞으로 있을 22번째 개인전에는 또 어떤 작품으로 짱~한 울림을 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김지수 리더예술인(금속공예가)

#KimJi-Su #디자인과사회복지 #장애와예술 #금속공예 #김지수작업실 #아들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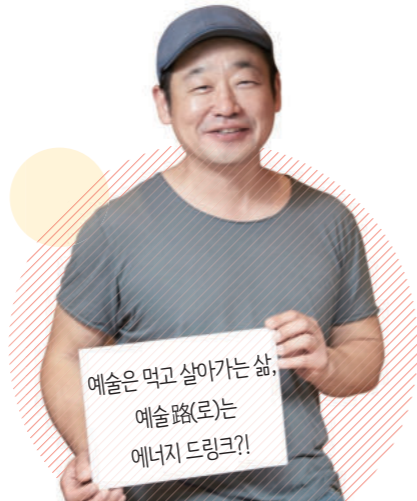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 참여가 이번이 세 번째라는 김지수 작가, 프로젝트를 제안한 리더예술인이다. 디자인센터 일을 거쳐,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게 되면서 한부열 작가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 두 번의 공모사업과 달리 올해 신설된 기획사업에 장애 아티스트 참여가 가능할 것 같아 한부열 작가가 떠올랐고, 서로 다른 분야의 작가들과 뜻있는 디자인회사를 찾아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초기에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서 작가들 작업실도 방문하고, 전시회도 가고 연습실에도 찾아가고, 부열 작가 집도 방문했어요.” 이런 과정들이 협업 프로젝트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김지수 리더예술인. “사회복지도 문제해결, 디자인도 문제해결이라는 목적이 같아서 시작하게 됐다”며 디자인과 사회복지, 예술과 장애가 걸림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이번 프로젝트에 더 없는 만족을 표한다. 6개월의 시간 중 반이 지났지만 앞으로 프로젝트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본인 또한 궁금하고 설렌다.

황교준 디자이너

#hwangkyojun #kyojun_bag_design #ARTTY #Collaboration #artistagent #한부열의선물 #페타컴파니 #함께걸어요

“오래됐어요, 한부열 작가와는. ‘한부열의 선물’이라는 책을 출판할 때도 함께 했고요.” 황교준 디자이너는 예술인과 디자이너와의 콜라보 제품을 통해 예술인들의 활동과 자립을 지원하는 브랜드인 ‘ARTTY’를 런칭하면서 한부열 작가 사인에-가운데 줄을 긋는-로고를 만들어 에코백, 티셔츠 등으로 상품화하기도 했다. 김지수 리더예술인으로부터 ‘예술인과 기업 간의 협업 프로젝트’라는 취지를 듣고 합류하게 되었다고 한다. 참여한 작가들과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내년에도 할 수만 있다면 함께하고 싶다는 황교준 디자이너, 파티장 한쪽에 판매되고 있는 한부열 작가의 티셔츠는 인터넷 구매도 가능하다며 깨알 정보를 남긴다.



정경화 전통채색화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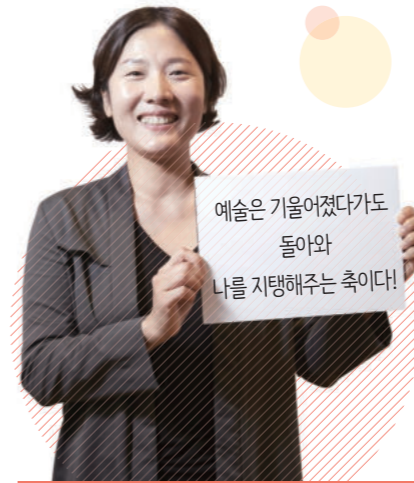
#JungKyoungHwa #color&coloration #nature poet #auspicious_painting #채색상징 #담뽀



“지수 선생님 제안을 받고 참여하게 됐는데 즐겁고 재밌어요. 개인 작업자로서 협업에 대한 불안감과 불편함도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다들 정말 좋아요.” 특히 호불호가 드러나는 한부열 작가의 특성상 이 프로젝트가 힘들 법한데, 싫은 내색 없이 참여해 다른 작가들도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낸다고 덧붙인다. 개인전 준비는 물론, 오티즘엑스포 참여 등 가장 폭넓은 활동을 하는 한부열 작가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다양한 영감도 얻고 있다며 “직장생활을 하다 개인창작 작업을 시작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는데 이런 협업을 통해 다른 장르 작가들과 만나고 작품들을 보면서 치유 받는 느낌이다.”라는 정경화 작가, 서로 다른 예술세계를 알아갈 수 있어서 이번 프로젝트가 만족스럽다고 강조한다.

문춘선 공예가

#ChoonSunMoon #현대장신구 #ContemporaryJeweller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문춘선 작가, 지난해 이 사업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경험이 있다며 비하인드를 공개한다. 올해 김지수 리더예술인이 잘 이끌어줘서 함께할 수 있었다는 작가는 처음 해보는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한부열 작가님 집에 방문했다가 예전 그림들을 보았는데 정말 좋았어요. 정규 그림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의식의 흐름대로 그려진 느낌, 이미 교육받은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 예술을 예술로 수용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고 한다. 작가는 이번 협업 프로젝트가 “예술가로서의 직업(의식) 같은 걸 느끼게 해주었고, 또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줬다”라고 남다른 소회를 밝힌다.

이태용 미디어 아티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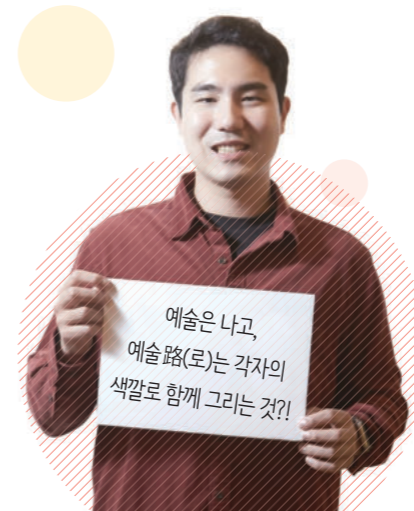
#LeeTaeYong #visualart #kineticart #atopist #아직은충각 #팔팔합니다

올해로 예술(로) 사업에 다섯 번째 참여한다는 이태용 작가, 설치미술가이자 키네틱 아티스트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차이를 묻자, “리더예술인 축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이고 리스크도 적다”고 한다. 장애·비장애 예술인 협업 프로젝트의 특이점에 대해서는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라 소통방식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점이 특이하다”며 현재까지 애로점 없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단다. “협업으로 균형을 잡아가야 하기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기만 옳다고 하면 힘들겠지만, 서로가 양보하며 맞춰가다 보면 어느덧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내는, 매력적인 사업”이라며 선함자다운 답변을 건넨다. 예술은 할 만 하지만 ‘예술가’라는 정체성이 붙으면 더 특별해지고 무거워지는 느낌이라는 작가의 마지막 말이 묵직하게 다가온다.



김명규 배희관밴드 드러머

#KimMyounKyu #드러머 #음악감독 #@mkmk1190 #배희관밴드



배희관밴드의 김명규 드러머, 자신 또한 장애·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밴드에서 활동하지만 타 장르의 예술인과의 협업은 처음이라고 한다. “음악 하는 사람들 말고, 조형예술이나 그림 작업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면서 새로운 예술의 세계,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장애가 있는 한부열 작가에게서 많은 영감을 얻는다고. “작가님의 ‘북치는 사람’이라는 그림을 보고, 북 연주자로서 배경에 다른 화성 악기가 아닌 북이나 퍼커션 같은 타악기로만 음악을 깔면 어떻게 하는 생각으로 작업한 거예요.” 파티 공간에 상영되고 있는 영상에 대한 그의 설명이다. 미술과 음악의 콜라보 영상에서 장애, 비장애라는 경계를 느낄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술은 예술로 통한다’는 걸 새삼 느꼈다는 김명규 드러머. 팀에서 인정한, 한부열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동생이라고 한다.

휠체어무용의 시작을 열고, 미래를 꿈꾸다

K-Wheel Dance Project **김용우** 대표

“더 나은 당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매일 당신의 기록을 깨뜨려라. 그러면 성공한다.” 저명한 연설가인 윌리엄 보엿커의 말이다. 사람들은 어제보다 나은 나를 꿈꾸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여기 ‘휠체어 무용’이라는 분야를 개척,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온 이가 있다. 바로 김용우 무용가다. 그는 1997년 캐나다 어학연수를 마치고 여행을 하던 중 자동차 전복사고로 휠체어에 앉아야 했다. 18년의 세월 동안 무대에 오른 그에게 휠체어는 예술을 표현하는 도구다. 이제는 K-Wheel Dance Project 이끄는 대표로서, 장애예술의 영역을 넓히고 있는 무용가 김용우를 만나보자.

글 편집부 / 사진 최지원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페스티벌’ 개막식에 축하공연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공연을 마친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성남시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12월 3일, 성남시청에서 ‘꽃춤’이라는 공연의 무용 수업이지요. 휠체어 타시는 분들한테 재활이나 운동 말고도 무용이라는 예술을 접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는 청각장애인 1명, 휠체어무용가 1명, 스탠딩무용가 2명으로 이루어진 K-Wheel Dance Project도 시작했습니다. K-Wheel Dance Project를 통해 창작 작업 외에 기획, 행정운영까지 경험하는 중입니다. 공연과 달리 어렵지만, 다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작년까지 대학원 다니고, 창작 작업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K-Wheel Dance Project의 대표가 되면서 더 바쁘셨을텐데, 대학원도 병행하신건가요?

일반무용가나 안무가는 그들만의 예술적인 소양이나 가치관이 있더라고요. 작품을 바라보는 시야도 다르고. 궁극적으로 예술이란 무엇인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마침 성균관대학교에서 예술학 협동과정이었었고, 전반적인 예술학을 공부하며 시야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론적인 인풋을 경험하니, 작품 구상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것이 창작 작업으로 이어졌고요.



캐나다 사고 이후 휠체어 댄스스포츠를 만나기까지 방향의 시간도 있었다고요.

유학을 마치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난 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상황이 달라진거죠.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캐나다에서 사고가 났고, 캐나다에서 재활을 시작했어요. 캐나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재활 프로그램과 운동법을 권했거든요. 또, 사람들의 시선이나 관계들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 들어온 후, 사회적 분위기에 갇힌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그때는 21년 전이었으니까요. 고민하다 치료 대신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어요. 그 과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휠체어 댄스스포츠를 접하게 됐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막연히 재밌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휠체어 댄스스포츠의 처음을 함께하신 거잖아요. 한 분야를 개척하기까지 힘도 들고,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공연환경이나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시작할 때만 해도 휠체어를 타고 춤을 춘다는 개념이 없었죠. 장애인계는 물론 대중들에게도. 사회적인 지원과 공연비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요. 지금과

는 많이 달랐죠. 단순한 호기심이나 부정적인 시선 대신 무대 자체에 감동 받도록 노력했습니다.

처음으로 참가한 휠체어 댄스스포츠 국제대회에서 우승하셨어요. 그 이후로 국제대회를 휩쓸다가 무용가, 안무가가 된 계기가 있나요?

늦게 시작한 만큼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어요. 빠른 스피드, 턴 그리고 표정연기. 특히 표현력에 집중했어요. 그 표현을 하기까지 2년이 걸렸지만, 무용계로 오고 나서도 그 과정들은 굉장한 도움이 됐습니다. 2006년에는 한국 장충체육관에서 중국장애인기예단과 같이 무대에 올랐는데, 큰 규모와 맛있는 공연에 놀랐죠. 이듬해에 영국 '캔두코 댄스 컴퍼니'의 공연을 보며 10분 이상 계속되는 현대무용에서도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빛소리친구들'을 창단하게 됐고, 안무가도 초빙하며 현대무용을 시작했죠. 2009년에 창단 공연과 선수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워 무용에만 집중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공연에 영감을 받으며 휠체어무용의 영역을 넓혀오셨어요. 대표님은 휠체어의 어떤 매력을 느끼신 건가요?



김용우 대표가 처음으로 창작한 1시간 공연의 작품 <Dreamer 中 춤추는 時>, 2015



<Active Tango>, 2012



<방황하는 몸>, 2018

휠체어를 타면 생각보다 자유로워요. 땅에서보다. 바퀴가 주는 스피드도 있고요. 춤을 추며 무대에 몰입하게 되고 자유로움도 느꼈던 거죠. 공연으로 제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됐습니다. 또, 휠체어무용을 하며 스포츠나 예술을 하는 많은 장애인분도 만났는데,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대단하시죠. 매번 저에겐 큰 자극이 됐습니다.

무대 위, 공연을 통해 대표님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있다면요?

저는 행사나 강연으로 대중들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어떤 관점이나에 따라 다르지만, 대중들이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 즉각적으로 "멋있다", "재밌다"라고 생각될 수 있게 풀어내려고 해요. 예술의 틀이 강해서 대중에게 풀어내는 걸 꺼려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장애예술이 그 중간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고, 관객분들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에 처음 휠체어 댄스스포츠로 시작한 대표님과 지금의 대표님을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공연할 때, 휠체어에서 내려오기까지 10년이 걸렸네요. 휠체어무용이니 관객들 앞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2012년에 처음으로 휠체어에서 벗어나 바닥에서 춤을 추었고, 작년 6월에는 바닥에서 시작해 춤을 추면서 휠체어에 다시 올랐습니다. 제가 가진 공연의 한계도 점점 넓혀왔습니다. 2015년에는 처음으로 제 창작 작품들로만 1시간 공연을 했어요. 일반무용가도 학창시절을 지나 개인창작 공연을 하기까지 12년 정도 걸리잖아요. 늦게 시작했지만, 마찬가지로 일반무용가가 경

험한 시간을 다 겪은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휠체어 무용가, '휠체어무용의 전설'이라고 불리며 장애무용계를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앞으로 대표님은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제가 원래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는 잘 못해요. 용두사미라고 하죠. (웃음) 그래도 오래 해온 것이 무용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완성하거나 마무리 지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작하고 열어가 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요. 앞으로도 방향이 닿는 대로 공부와 창작 작업을 계속할 것 같아요. 그렇게 열어가다 보면 열에 한 명은 무용으로 나가는 길을 찾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오랜 세월 장애예술계를 지켜본 한사람으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많이 바뀌고, 정책도 보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실감했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페스티벌'처럼 지속적인 프로젝트가 많아지면 지원정책도 이어지지 않을까요? 또한 장애예술인의 특성상, 특히 무용계는 저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예술가가 되기도 합니다. 예술인 스스로의 고민과 발전도 필요하지만, 그들이 장기적인 교육을 받고, 작품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의 깊이와 폭을 넓혔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 전문 예술가를 양성할 수 있고, 그들이 좀 더 깊이 있는 예술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있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

김용우 대표

2002년 국내 첫 휠체어 댄스스포츠 선수, 2005년부터 휠체어 댄스스포츠 아시아대회 4년 연속 우승, 2006년 휠체어 댄스스포츠 세계선수권 결승 진출, 2008년 휠체어 댄스스포츠 세계선수권 4위, 평창동계패럴림픽 개막식 공연 및 멘토 등 국내 활동을 했고, 지금은 K-Wheel Dance Project 대표로서 공연 및 교육을 진행 중이다.

‘결여’를 창작의 자원으로 삼는다면, 장애인복지카드가 없어도 좋다

김원영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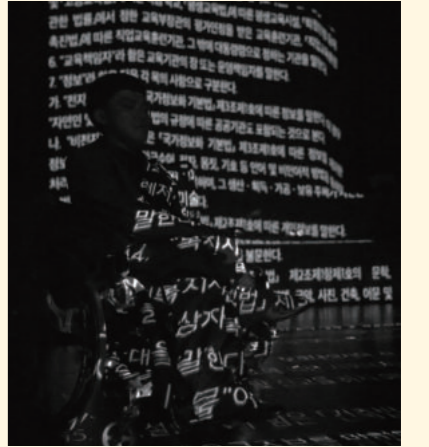


어린아이였던 시기 친구들과 뛰어다니지 못한 탓일 수도 있지만, 나는 늘 어떤 에너지를 온몸에 가득 안고, 폭발할 것 같은 마음으로 쉽게 잠들지 못했다. 열 살이 넘었을 즈음 집 안에 작은 농구대를 설치했고, 가구와 화분을 부수면서 친구들과 ‘좌식농구’를 했다. 온몸이 땀으로 찌들만큼 움직이자 한결 나았지만, 여전히 그 폭발할 것 같은 감각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았다. 나는 학교에 가지 못했기에 낮시간을 혼자 보냈고, 그 시간 내내(물론 앉아서) 농구를 하거나, 음악을 엄청나게 크게 틀어놓은 채 방 한구석에서 반대편까지 뛰고(당연히 기어서), 빙그르르 구르며 바닥을 휘젓고 다녔다.

다소 늦게 특수학교에 입학했다. 사물놀이를 했고, 작은 가요제에도 출전하다가 (마침내) 연극을 했다. 큰 소리로 외쳐야 하는 첫 대사를 만났는데, 실제로 말하기까지 2주 가까이 걸렸다. 도저히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대사를 입 밖으로 내뱉었을 때, 전혀 다른 상태에 내가 도착했음을 알았다. 과거에 대한 무리한 해석 인지도 모르지만, 분명 그 순간의 해방감은 내가 아무도 없는 작은 방 안에서 농구공을 집어던지고 바닥을 구르면서도 느껴야 했던 그 답답한 감각과 어느 정도는 이어져 있었다. 말하자면, 나는 몸을 움직이고 싶었을 뿐 아니라 ‘방 밖에서’, 즉 타자가 존재하는 세계 속에서 그들과 함께 소리치고 움직이고 싶었던 셈이다.



〈사랑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2019



장애예술, 의료적 의미에서 나아간 경험의 재해석

장애예술이라는 말은 어딘가 이상하게 들린다. 어떤 창작자들은 자신이 그저 화가이거나 무용수이지 ‘장애인 화가’, ‘장애인 무용수’는 아님을 강조한다. 일리가 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장애예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자신의 작업이 ‘장애예술’의 하나라고 밝힌다. 이는 ‘장애’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장애인복지카드로 증명되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가지고, 국가의 인증을 받은 특정 인구집단으로서의 ‘장애인’에 주목하면, 왜 다 똑같은 창작활동을 하는데 굳이 복지카드 소지자라는 이유로 ‘장애예술인’으로 별도 취급되는지 분명 의문이 든다(게다가 장애라는 말은 거의 항상 부정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장애를 정신적, 신체적 손상이 사회문화적 실천들과 만나 구성되는 인간의 특정한 경험이라고 생각해보자. 여기서 장애는 의료적 의미만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것

이기도 하다. 페미니즘 문학, 흑인 음악이 성립되는 이유는 해당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경험과 그로부터 비롯된 감수성이 창작 과정에 중요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장애예술을 말할 수 있다. 장애예술은 ‘장애인들이 하는 예술’이 아니라, 장애라고 하는 특정한 경험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창작의 주제의식과 방법론을 탐색하는 예술활동이다.

장애라는 경험이 만든 새로운 감각의 예술

나는 (예술가라는 말은 너무 민망하지만, 굳이 사용한다면) 스스로를 ‘장애예술인’이라고 말하는데 큰 거리낌은 없다. 내가 기획하거나 직접 참여하는 공연 등 모든 작업은 장애를 가진 어린이에게 아무런 자유도 주지 못하던 시골 마을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시절 동안, 배움도 인간적 교류도 희미했던 시간을 폭발할 것 같은 에너지와 싸우던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 그간의 역사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마주했던 질문들, 타인으로부터 제기된 혐오들, 부당한 차별과 낙인에 대한

문제의식과 접속해 있다.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모두는 장애라는 경험에 접속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감각을 얻을 수 있다. 청각장애인의 수어는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하는가. 자폐성 장애인이 바라보는 사물들의 형태나, 시각장애인이 손과 귀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언어로 재현해낸 시각적 이미지는 어떻게 구체화 될까. 어린 시절부터 양손으로 바닥을 기며 살아온 지체장애인의 몸과 하루 종일 혼자 있던 공간에서 어찌할 줄 몰라 보낸 시간들이 만든 움직임은 어떤 모습인가.

불행이나 비극의 상징으로 생각되던 우리 몸과 마음의 어떤 ‘결핍’, 혹은 그 결핍이나 결여를 바라보는 사회적 태도를 자원으로 삼아 창작활동을 한다면, 당신도 나도 모두 장애예술인이다. 장애인복지카드나 예술인패스가 없어도 괜찮다. ▲

김원영 변호사

2013년부터 공연을 제작하거나 장애인문화예술 정책을 연구하고, 장애예술 관련 포럼을 기획하는 등의 일을 했다. 2019년에는 서울변방연극제에서 연극 〈사랑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출연했고, 10월 29일부터 두산아트센터에서 연극 〈인정투쟁: 예술가편〉으로 무대에 선다. 법무법인 덕수에 소속된 변호사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예술인으로 살아가기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장애예술인에 대한 새로운 인지 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장애인은 무능한 사람이고 예술인은 비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장애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장애예술인의 창작을 예술로 보지 않는 것이다. 단지 장애인의 취미생활이나 재활치료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이런 인식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2018년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이다. 문화부에서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 것은 2012년이였다. 2012장애문화예술인실태조사는 대학로에 장애인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때 장애예술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창작지원금이었고, 창작공간은 두 번째로 나타나 연구 목적을 100%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설득력이 있었다. 장애예술인 개인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창작지

원금이 훨씬 필요하니 말이다.

그런데 6년이 지난 후 실시된 장애예술인실태조사는 그 명칭부터 잘못되었다. 장애인이 어떤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연구 목적을 두다 보니 모집단이 장애예술인 그룹이 아닌 장애인복지 그룹인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거주시설 등으로 되어있어 장애예술인의 예술권보다는 장애인의 문화권에 대한 욕구만 드러났다. 즉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으면 하는 것이었다. 체육으로 예를 들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확대이다. 물론 장애인의 문화생활도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장애예술인들의 실태를 파악해서 장애예술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으로 범주를 확대한 실태조사로 장애예술인의 실태를 또다시 묻어버린 것은 장애예술인을 인정하지 않고 예술계에서 장애예술인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예술로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장애예술인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장애인예술 자체가 일반예술과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책 부재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장애인예술이 공론화되어 역동적인 장애인예술 운동이 일어났다. 영국 정부는 장애인예술인이 예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국예술위원회에 장애인예술 전문자문위원회(Disability Reference Group)를 구성하여 장애평등계획(Disability Equality Scheme)을 1차(2007~2010)와 2차(2010~2013)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 장애평등계획의 목적은 장애인예술인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었고, 2차 장애평등계획의 목적은 장애예술인의 명성 높이기였다.

이밖에 독일은 유크레이(EUCREA), 미국은 VSA(Very Special Arts), 일본은 에이블아트(Able Art), 중국은 중국장애예술단 등이 장애인예술을 대표하고 있는데 장애인예술을 한계가 없는 예술, 모두를 위한 예술, 경험예술로 특징지어 예술의 한 장르로 발전시켰다. 이렇듯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장애인예술이 정책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예술이 예술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매우 안타깝다.

근육병이 진행되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숨조차 쉬기 어려워 인공호흡기를 꽂고 생활하는 김진우 시인은 시를 쓴다. 2017년도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대상을 차지한 후 일반 문학상에 꾸준히 도전하여 크고 작은 상을 수상했다. 2018년도 '시의 날' 행사에서 시 낭송을 하였는데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시를 들으며 온몸으로 전율을 느꼈다고 그 순간의 감동을 말했다.

중증의 장애로 학교에 가지 못해 만화를 보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소녀 이혜경은 엮드린 자세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는 습작 기간을 거쳐 20살에 『새소년』으로 데뷔하였는데 그 소녀가 지난 7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김예지는 피아노 전공으로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재원이다. 무대에 오를 때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입장하여 완벽한 연주를 선보일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어학연수를 마치고 귀국 길에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를 타게 된 김용우는 휠체어무용가로 독보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애예술인 법안에 대한 노력과 열망

저마다 독보적인 예술 분야를 구축해낸 장애예술인들의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한국장애예술인협회에서는 장애예술인의 삶과 예술을 담은 스토리텔링북 <누구?! 시리즈>를 기획하여 13종까지 발간하였다. 그러나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마련해야 하기에 공모사업에서 탈락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관계로 지속적인 스토리텔링북 시리즈 제작에 가속이 붙지 않고 있다.

2018년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예술인 6천여 명, 장애인예술활동가 26만여 명으로 추산했지만, 현재 우리나라 장애예술인은 1만 명에 달한다(2019년 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방귀희 박사학위 논문, 2013). 장애예술인 인구가 1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은 전무하다. 하여 1만 장애예술인들의 열망을 담은 「장애예술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

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돕는 창작지원금제도, 장애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지원고용제도, 장애예술인에게 일정 비율의 참여를 확보해주는 공공퀴터제도이다. 그런데 국회가 민생은 젓혀놓고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어 장애예술인들은 초조하고 불안하기만 하다. 이 법률은 2012년부터 준비하여 2016년도에 발의되었고 2017년 국회 공청회로 의견수렴까지 마치는, 일련 모든 과정을 어렵게 밟았다. 이번 국회에서 완결되지 못하면 폐기되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구제와 예방 시스템 구축인데 그것을 일정 집단의 이익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도 아쉽다. 장애예술인을 이대로 계속 방치하는 것은 정치적 유린이며 사회적 유기이다. ▲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이자 『美지』 발행인이다. 저서로는 최근 출간된 『배제와 포용』을 비롯해 『장애인문학론』, 『장애학으로 보는 문화와 사회』 등 다수가 있다.

다시 태어나도 피어로 인생

박웅 배우



배우로 살아가는 삶

나는 배우로 살아온 것에 감사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가끔 다른 일을 했다면 지금 나의 모습이 어땠을까 생각해볼 때가 있다. 상상이 되지 않는다. 아마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지 못했으니 허전했을 것이다.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하는 이유는 배우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배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들이 연극영화과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다. 연극으로는 생활하기 힘들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아내와 같이 연극을 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한다고 하니 마음이 쓰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봤다. 내가 살아온 방향이 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한 게 아닐까 하고. 유전자는 물론 어릴 때부터 보고 들은 것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는 그저 좋을 뿐이다. 조금 고생스러울지라도 하고 싶

은 걸 계속하는 모습이 다행스럽기도 자랑스럽기도 하다. 그럴 일은 없지만, 그때 아들의 선택을 반대했다면 아들과 <수상한 수업>으로 한 무대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희로애락을 지나 만나는 카타르시스

배우란 무대에서 연극을 하며 여러 형태 작품 속 인간을 만나게 된다. 물론 극작가가 만든 상상의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작품에 형상화된 인물이 배우를 통해 똑같은 인물로 다가가는 것은 배우에게 주어진 첫 번째 중요한 작업이다. 지금까지 연극, 드라마, 영화 등에서 어떤 인물을 연기했는지 되돌아보면 늘 아쉽기도 하다. 관객에게는 실제 연기한 배우보다 작중 인물의 성격이 더 선명하게 남아있기에. 작가가 그린 인물이 배우의 연기를 통해 더 오래 기억될 것이다.

연극, 드라마, 영화 등에서 작가가 그린 가상의 인물은 배우를 통해 무대

위에 창조된다. 그 인물이 사람과 상황에 따라 좋게도, 기억도 하기 싫은 끔찍한 인물로도 남게 된다. 그저 배우는 묵묵히 작품 속에 그려진 인물의 성격에 다가가기 위해 연기를 할 뿐이다. 비로소 관객은 배우의 연기를 마치 실제 인물처럼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연극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접한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다. 처음 봐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을 셀 수 없이 만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 기분 좋은 일만 접하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 희로애락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생활이다. 즐거운 일이건 기분 나쁜 일이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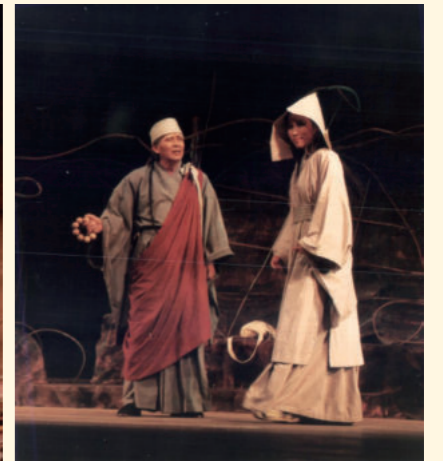
연극에서 배우의 역할은 이러한 것의 정화작용에 일조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연극은 관객들에게 분별력을 제공한다. 연극은 카타르시스, 정화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한 편의 잘 만들어진 연극이 이러한 사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연극이 주는 에너지

배우를 흔히 '연극의 꽃'이라고 한다. 한 편의 연극이 공연되기까지는 천신만고의 리허설과 시간을 거친다. 2, 3개월의 연습은 기본이다. 막이 오르기도 전에 배우의 에너지가 다 소진되곤 한다. 드디어 막이 오르고 극장의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시선이 매섭다. 배우는 허허벌판에 내몰린 새끼 양처럼 도망갈 길이 없다. 연극은 관객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배우는 죽어도 무대 위에서 죽자.' 스스로 되뇌자 다시 기적 같은 힘이 솟구친다. 불이 꺼지고 박수 소리가 진동한다.



연극 <어느 하오의 인생>



연극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56년간 무대에 오르고 박수를 받기까지 참 많은 행운을 만났다. 80년대 초부터 2000년도에는 극단 자유를 통해 다양한 나라로 공연을 다녔다. 20여 년 가까이 연극 관련 국제행사,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해외여행조차도 흔하지 않았을 때다. 정부의 도움 없이 극단 자체의 힘으로 매년 무대에 올랐다. 셰익스피어의 <햄릿>, 가르시아 로르카 <피의 결혼식>을 각색하는가 하면 창작극을 공연했다. 20명 남짓한 단원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한국작품을 한국어로 연기한 그때야말로 한류의 시초가 아닐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다.

1991년에는 동료들과 연극배우협회를 만들었다. 친목 위주의 단체뿐이던 그때, 협회를 설립했고 감사하게도 1대, 2대, 3대 이사장을 할 수 있었다. 이후 배우, 작가, 연출, 스텝 모두 속해있는 사단법인 연극협회의 19대 이사장에도 선출됐다. 그 당시에는 열 일 제쳐두고 배우보단 연극하는 한 사람으로서 연극계의 풍토를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배우, 영원한 피어로

연극은 역사적인 장르다. 비록 사람들과 멀어졌을지라도 연극이 갖는 힘은 세월이 흘러도 살아가면서 가장 독특한 분야로 존재하고 있다. 연극은 배우가 하는 일 중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작업이다. 묘하게도, 공연예술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할지라도 연극은 현장예술로서 우리의 일상과 완전히 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연극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늘 하는 말이다. "영화나 TV는 어제의 예술이고, 연극은 오늘의 예술이다." 늘 관객들과 현장에서 호흡하는 작업이 연극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 정신도 몸도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 자만이 배우의 길을 갈 수 있다. 물론 모두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다. 자신을 굳게 믿는 마음. 박웅의 배우 인생, 힘들긴 했지만 즐겁게 잘 지나왔다. 지금도 무대에 설 수 있으니 어느 직업에 비할 수 있겠는가. 배우는 나이가 없다고 한다. 영원한 청춘, 나이를 잊고 사는 배우. 사랑하며 살려다. 내 사랑 피어로! ▲

박웅 배우

동아방송 성우극회 1기. 1968년부터 극단 자유에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라> 등을 공연했다. 최근 <수상한 수업>, <금의환향> 등에 출연했고, 오는 12월에는 <황금연못>을 준비 중이다. 동아연극상, 대한민국예술원상 등을 수상했다.

예술인에게 복지란 무엇인가

신달자 시인



많은 예술인에게 복지는 낯선 단어이다. 하늘은 언제나 바라볼 수 있지만 손닿을 수 없는 영역과 같은 것처럼. 예술인이란 이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분야마다 다르지만, 문학에서 보면 ‘복지는 사막을 걷는 자의 목마름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복지가 넘치는 곳이 있을지는 글썽, 잘 모른다. 보편적 도움을 받으려고 몇 개 되지 않는 복지의 문을 두드리다 지친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리라. 그래서일까, 지원금이 존재하되 그 그림자조차 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끝없이 나아가야 할 예술인의 복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우리나라가 복지 하나는 잘 되어 있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진실이라면 강(江)의 말이 다르고, 산(山)의 말이 다름을 표현한 것일 뿐, 결국 복지는 받는 사람에게는 축복이라는 것. 고루고루 받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 예술인의 어떤 믿음만한 면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가장 핵심이며, 그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는 심장이 강해야 한다. 의지를 갖고 높이고 넓히는 것이 복지의 심장 박동 소리라고 할 수 있다. 난항에도 굴하지 않고 크나큰 박동 소리를 울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복지다. 그것이 국가의 힘이고 예술인에 대한 예우라고 할 수 있다. 그 힘이 결국 예술 혼을 키우는 원동력일 것이다.

“복지란 여기까지”라는 건 없다. 나아가고 더 나아가야 한다. 그 나라의 발전 가능성은 “예술인들에게 어떤 대접을 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예술은 키워지는 것, 그러므로 배려와 돌봄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배려와 돌봄이 ‘나에게도 다가온다’고, ‘나는 배려와 돌봄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예술인들은 사라져 가는 예술 감각을 깨워 자신을 넘어서는 천재성을 촉발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안정감으로 탄생하는 훌륭한 창작물

복지의 탄생은 그 예술혼의 확장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영국에서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 (Minister for Loneliness)’이 임명되었다. 외로움을 국가적 차원으로 끌어 올렸다는 얘기가. 국가 복지정책에서 외로움 담당 장관이 임명되었을 때, 타이밍이 잘 맞았다고 생각했다.

외로움은 사회적 단절에 의한 정신적 고통이 하루 15개의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한다. 그렇다면 소외감은 어떨까, 외로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외로움보다 하루 담배 30개를 피우는 정도로 독성이 더 강하다는 것 뿐. “너는 되는데 나는 안돼”는 결국 자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혜택이 가는데 나에게는 먼 얘기다”라고 할 때 그 소외감은 담당 장관 이상의 돌봄이 필요할지 모른다.

복지는 서로 어려움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 예술인 스스로의 노력과 어울림 속으로 들어 가려는 부단한 의지가 중요하다. 배려와 돌봄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자격을 쟁취하려는 부단한 노력 또한 예술인들의 몫이다. 어느 문학 교수는 “복지의 지원을 거당하지 않고 온 전력을 기울여 하나의 예술품을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자기 능력을 뛰어넘기 위해 갱신의 시간을 보내며 창작품을 이 세상에 내놓을 수만 있다면, 복지지원은 반드시 그에게 걸어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옳은 말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훌륭한 창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발점의 가능성은 바로 ‘지원’이다. 예술인에게 안정감은 중요하고도 절대적인 힘이 될 수 있다.

격려와 인정 속에서 커지는 예술사랑

197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아이작 싱어 (Isaac Bashevis Singer)는 “모든 인간은 설사 그 사람이 백치라 할지라도 감정의 백만장자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예술인은 감정의 백만장자이다. 이 감정의 백만장자를 그냥 떠내려가게 하지 않고 소중한 씨앗으로 키워낸다면 개인의 백만장자를 한 사회의, 한 국가의

백만장자로 키워 낼 수 있을 것이다. 복지는 다독거림이고 등을 문질러주는 격려다. 사회가 주는 격려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술인들을 인정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며 포기하려는 창작의 욕을 부추기는 강력한 생명력과 같다.

예술작품은 많을수록 좋다. 많은 사람의 시선, 마찰, 느낌, 충격들이 많아지면서 공감하다 보면 작품들을 선호하는 다양한 선택이 예술가들에게 결국 무엇인가 하려는 의지와 돌파구를 찾게 한다. 얼마나 외로운 작업인지 얼마나 공포스러운 작업인지 심각한 갈등을 믿어주며 “해 보라구”라고... 포기하지 말고 부단히 작품 세계에 머물고 견뎌내야 하는 일은 예술인들의 의무를 증폭시키는 예술사랑일 것이다. 밀어주는 복지야말로 의기소침한 예술인들을 일어서게 할 것이다.

작은 복지는 큰 작품을 태어나게 한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발전 가능성은 예술인의 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맞다. 복지 공간을 더 튼튼한 의미와 가치로 증폭시키며 예술인이 행복하고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외면하지 않는 건강한 복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한 명이라도 더 도움을 주고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지 말이다. ▲

신달자 시인

시 ‘환상의 밤’으로 문단에 데뷔했으며 시집 <종이>, <복춘>, <간절함> 등을 펴냈다. 신인여류문학상, 대한민국문학상, 한국시인협회상, 은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했으며 한국시인협회 회장을 거쳐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다.

여성 + 엄마 + 배우 = 나

유정민 배우·극작가



얼마 전, 남편이 페이스북에 동영상 하나 공유했다. 작년 ‘캔터빌의 유령’ 공연을 준비하던 때의 연습 동영상이었다. 그 속의 나는 2살 난 셋째를 업고 안무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 밑에 어느 선배의 댓글이 달렸다. ‘10년 동안 아이 키우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중략)느닷없이 툭툭 눈물이...’

예술하는 여성, 엄마로서의 딜레마

아이를 낳기 전, 아니 결혼하기 전부터 선배들로부터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어온 얘기가 있다. “예술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여자가 그만두게 된다”는 것. 정설에 가까운, 무슨 과학적 진실처럼 말했다. 이런 이유로 자기네 인생에 결혼은 없다고 덧붙였다. 내 첫 임신 소식이 알려지자 전화를 했던 선배 하나는 “미쳤구나! 경력 잘 쌓아가다가 웬 임신이야! 배우로는 끝난 거야”라며 안타까움 섞인 욕을 해 주기도 했다. 큰애를 낳고 6개월간은 육아만 했다. 그동안 나는 우울증에 빠졌다. 사랑

스러운 아이를 안고 나는 불행했다. 내가 없어진 기분이었다. 다시 연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두려웠다. 정말 이 아이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느 날,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물었다. “어린이집 가는 거 어때? 좋아?” 아이가 젖꼭지에서 입을 딱 떼면서 “좋아”라고 말했다. 눈이 화등잔만 해진 나를 잠시 쳐다보던 아이는 쿨하게 다시 젖을 빨았다. 거짓말이라고 해도 좋다.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일터로 나가고 싶은 엄마가 죄책감을 덜고 싶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해도 좋다. 나는 용기백배해 어린이집을 찾아 나섰다.

연극인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했던 ‘대학로 어린이집’. 밤 11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어서 대학로에서 공연 끝나고 헬레벌떡 달려가면 아이를 픽업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연극인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었다. 공연도 늘 대학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었으니 대학로 근처에 살지 않는 한 이용하기 어려웠고, 그나마도 주말엔 불가능했다. 그러던 중 해화로터리 쪽에 연극인 자녀들을 위한 ‘반디돌봄센터’가 생겼다. 선배 연극인 부모들이 애써서 만들어진 결과였다. 주말에 아이를 맡기러 친척집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었다지만, 그나마도 이사, 큰애 유치원 입학, 둘째 임신, 서계동 연습, 남산 공연 등으로 생활반경이 대학로를 벗어나면서부터는 이용이 어려워졌다.

엄마, 그리고 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

큰애를 만 6개월에 어린이집에 보내고는 자신감이 생겼다. 둘째는 5개월, 셋째는 3개월에 어린이집으로 등원했다. 물론,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도 공연을 했다. 무대에 설 수 없을 만큼 배가 불렀을 때는 글을 썼고, 노래를 녹음했고, 복귀해서 할 공연의 회의를 했다. 아이 낳고 3개월 만에 무대에 복귀하는 나를 보고 사람들은 일에 미친 거 같다고 했다. 애보다 연기가 좋은 일에도 했고, 독하다고, 억척스럽다고, 대단하다고도 했다. 이 말들은 다 틀렸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일에 미친 것도 아니고, 애보다 연기가 좋은 것도 아니며, 독하거나 억척스럽거나 대단한 사람도 아니다.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 예술을 하기 위해 결혼이나 아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었던 것뿐이다. 내 딸들이 자신의 꿈과 가정을 맞바꾸기를 종용당하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바랐을 뿐이고, 내 후배들이 아이를 낳고 일터로 갈 때 내가 겪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육아가 전적으로 여성만의 책임은 아니며 내가 10살 때부터 꿈꿔 온 대학까지 가서 공부해 술한 오디션을 거치고, 무대에서 맘 흘려 노력한 내 시간을 멈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뿐이다. 내게 있어 배우로서의 삶은 정체성이다. 엄마가 된다고 정체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예술하는 여성배우엄마로서의 나

육아와 공연, 연습을 하면서 제일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동료들이었다. 아이를 재우고 난 늦은 밤에 우리 집에 와서 회의를 해주고, 공연장에 백일 된 애를 안고 가면 돌봐주고, 아이와 함께 투어 공연을 다녀주며 품앗이 육아를 해 준 동료들 덕에 나는 아직도 배우로 살고 있다. 제도가 더 나아지면 국공립극단에 직장어린이집이 생기거나, 아이돌봄 선생님을 파견해 주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고용조차 불안정한 직업인 배우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다. 나는 요즘 고전동화를 재창작한 어린이 낭독 뮤지컬 ‘삼양동화’를 공연하고 있다. 잘못된 젠더의식으로 가득한 고전동화를 현대적인 관점에 맞게 들려주다 보면 부모 관객들이 더 공감하는 객석 풍경을 목격한다. ‘오늘 하루’라는 음악극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셋째가 너무 어릴 때 만들었던 공연이라 말할 데가 마땅치 않아 같이 무대에 섰던 것인데, 덕분에 아이들은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재인별곡’이라는 공연에서는 경기도 연천지역의 설화를 미투운동의 관점으로 풀어냈고, 내년 2월에 공연할 뮤지컬 ‘스

페셜 딜리버리’에서는 여성과 임신, 가정에 대한 시각을 담아 관객과 만나려고 궁리 중이다. 이 작품들 모두에 내가 있다. 여성이며 엄마이며 배우인, 나. 그 어느 것도 내가 아닌 것은 없으니, 그 어떤 것을 빼도 나는 완성되지 않으니, 내가 만들 수 있는 무대를 만들 수밖에. 혹자는 ‘안이해진 것 아니냐’고도 묻는다. 규모가 작은 어린이 대상의 찾아가는 공연들을 주로 하고 있으니 그렇게도 보이는 것 같다. 하지만 가정도 일도 아이도 정체성도 포기할 수 없는 배우의 선택은 이렇다.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고, 설 무대가 있으면 서고, 설 무대가 없으면 판을 깔고 앉아서라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것이다. 위대한 예술이 아니면 어떠랴. 내 안에 관객이 있고 그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나는 내가 만들 수 있는 무대를 만들 밖에... ▲

유정민 배우·극작가

중앙대 연극학과 졸업, 극단 아리랑과 오징어의 단원이었으며 국립극단 시즌단원(1기)이다. 2002년 데뷔 이래 현재까지 연극,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연극 <스페셜 딜리버리>, <삼양동화>, <오늘 하루>, <경성 판상권> 등을 집필했다.

소설가 구보 씨의 반나절

원종국 소설가



구보는 천변을 따라 걸으며 책의 무게에 대해 생각했다. 책 한 권 분량의 원고를 쓰고, 출판하고, 읽고, 그 책을 오래도록 곁에 지니고 싶은 마음들의 무게. 그리하여 마침내 어깨를 짓누르는 고통으로 탈바꿈되는 욕망들에 대해서도.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었지만, 낮엔 습한 기운이 남아 후덥지근했다. 가을장마의 뒤끝이라 더 그랬다. 구보는 등허리로 배어드는 척적한 느낌을 견디며 묵묵히 A 중고서점으로 걸었다. 마을버스를 탔더라면 왕복 2,100원의 요금이면 되었을 터. 평소 같으면 푼돈 축에도 못 끼는 돈이었지만, 오늘 같은 날은 기준이 달라졌다. 그건 가방 속에 들어있는 남미 작가 B의 장편소설 한 권과 C 작가의 산문집 한 권이 '최상급'으로 팔리더라도 100원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구보가 소위 '서재 개혁'을 단행한 건 지난겨울. 꾸역꾸역 책들이 늘어나 작은방을 꽉 채우더니 이내 거실 한쪽 벽면으로 달라붙어 침낭쿨처럼 기여오르던 참이었다. 그건 10여 년의 편집자 생활과 10여 년의 대학 강사 생활과 더불어, 아무려나 20여 년 소설가로 살아낸 결과물이기도 했다. 게다가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의 장난감들, 인형들, 각종 학용품에 소소한 잡동사니들까지 쌓이고 끼이고 놀리다 보니……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구보는 아내의 제안대로 작은방을 딸아이에게 내주는 대신 거실 양쪽 면에 원목 책장을 들여 천장까지 빼곡하게 채워 넣었다. 그 여파로 텔레비전과 소파가 영구히 퇴출되었는데도, 1,000여 권의 책이 천덕꾸러기처럼 남았다. 구보가 아내와 다시 타협한 결과는 딸아이 방 한쪽 면에만 책

장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딸아이에게도 책장이 곧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셈인데, 여하간 녀석이 열 살이 되기 전까지만 임대하는 방식이었다.

속고의 시간은 그 뒤로 지금껏 지속되는 중이다. 당시에 구보는 책을 네 부류로 나누었다. 필요한 책이거나 간직하고 싶은 책, 본인은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독자에게 유용할 듯싶은 책, 중고서점에 판매 가능한 책, 이도저도 아니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책. 한 달여 고민한 끝에 구보는 500여 권의 책을 도서관에 기증하고, 300여 권은 딸아이 방에 쟁여 넣었다. 그리고 남은 책 중 일부가 중고서점에 팔렸다. 문제는 그때 이미 책장을 꽉 채웠기 때문에, 이후에는 새로운 책이 생길 때마다 꽃혀 있던 책 중에서 어느 것을 덜어내야 한다는 거였다. 아내 그리고 딸아이와의 약속이 그랬다. 꽃힌 책은 어쩔 수 없지만 쌓인 책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

그럼에도 책 욕심은 한이 없어서, 자꾸만 책이 더 생겼다. 수업 준비에도 필요했고, 어떤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꾸준히 찾아 읽어야 했으니까. 그때마다 책장에서 몇 권의 책이 추려졌다. 큰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작업 공간을 별도로 마련한다면 모를까, 언감생심, 책 팔아 책을 사는, 그리고 그때마다 '살생부'를 만들어야 하는 괴로움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 천변 다리를 건너며 구보는 거대한 M자가 솟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싸구려 햄버거라도 한입 베어 물까 싶었다. 그 집 커피는 나름 가성비가 좋기도 했다. 그러나, 가방 속에 든 K의 여행 에세이나 L의 시집이 떠오르

자 선뜻 발걸음을 들이기는 쉽지 않았다. 하기는 저 M이 어느 '지방시(지방대학 시간강사)'에게 4대 보험까지 들어주는 구세주 역할을 했다지 않나.

구보는 한숨을 내쉬며 M을 지나쳤다. 그 역시 개정 강사법의 여파로 60% 가량이나 줄어든 강사료에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지난 학기엔 두 학교에 출강했지만, 그래서 소설 쓰며 강의 나가기 딱 좋다고 여겼으나, 결국 강사료가 괜찮다 싶던 한 학교에서는 채용되지 못했다. 아니, 그가 5년간 담당하던 과목 자체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았다. 한때는 네 군데 학교에 출강하며 이리다간 소설가로 살다 죽는 게 아니라 강사로 살다 죽겠다며 푸념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나마 강사법의 적용을 받는 강사로 간신히 살아남은 것만도 천만다행인 걸까? 그렇게 여겨야만 하는 걸까? 아무려나,

강사를 위한 대학은 없다. 2011년 개정 예정이던 법이 확정되기까지 7년 동안 대학이나 정부나 국회나 할 것 없이 '네 탓'만 하며 허송세월하지 않았다. 정책자들은 대학이 싹짓돈을 털어 빈 공간을 메꿔주리라 믿었고, 대학은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부족한 부분을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믿으며, 서로 헛되이 호소하고 협박하며 시간만 보내지 않았느냐 말이다.

구보가 대학 강단에 발을 들인 10여 년간 강사료는 단 한 푼도 오르지 않았으며, 도리어 깎이기까지 했다. 10여 년 전만해도 16주로 편성되던 한 학기 수업이 어느 순간 15주 체제로 바뀌어 학기말의 급여는 3주 치만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한 학교가 묘수를 시행하니 시차를 두고 모두 따라했다.

그러니, 결국 고래 싸움에 새우들만 죽어나는 게 아니냐. 구보는 A 중고서점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내려가며 벽에 붙은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초상화를 일별했다. H, J, P, W, D, E…… 그리고, '책 삼니다' 풋말 밑에다가 메고 온 가방을 부려 놓았다. B의 장편소설과 C의 산문집, K의 여행 에세이와 L의 시집…… 여덟 권의 책이 몸값을 판정 받는 동안 구보는 멍한 표정으로 탄창을 부렸다.

어항 속에 든 금붕어 같을까, 지금 내 모습이…… 어색하고 죄스러운 시간이 간신히 지나자, 구보는 이번 학기에 꼭 필요할 듯싶은 '소설 작법' 서적 두 권을 찾아 들고 판매대로 돌아왔다. 여덟 권을 팔고도 2,500원을 보탠 뒤에야 책 두 권을 소유할 수 있게 된 서글픔을 무어에 비하랴. 살 때는 후려치고, 팔 때는 배짱인 장삿속을.

구보는 서점에 들른 김에 눈에 띄는 책이 더 없을까 하고 서가 사이를 느긋하게 거닐었다. 독서 인구는 자꾸만 줄어서 쓰거나 만드는 사람들이 리 품앗이하듯 사 읽고……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조차 죽어라고 책을 안 읽는 세상인데…… 출판사와 작은 서점 살리자고 도서정가제를 시행했더니 대형 온라인 서점들만 매출이 늘어나는 건 또 무슨…… 이런저런 상념을 거쳐, 대뜸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100원 단위로 셈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돈은 있는 놈들에게만 쏠리고…… 그러나,

돈이 가는 길을 뉘라서 막을 텐가. 창문에 매달린 빔방울도 큰 물방울 쪽으로 달라붙어 주르르 흘러내리는 게 이치 아니던가. 돈 역시 푼돈들은 큰돈 쪽으로 달라붙게 마련인 것을. 돈에게도 바야흐로 돈의 길이라는 게 따로 있을 터. 사람들은 순진하게도 세상을 자신들이 움직여 간다고 여기지만, 돈에게도 본능이란 게 있어서 제 덩치를 불릴 수 있는 곳, 목숨 줄이 끊어지지 않을 데로만 귀신같이 알고 흐르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중에, 구보는 서가 한쪽에 꽂힌 익숙한 모양의 책 한 권을 발견했다. 구보 자신의 두 번째 소설집.

기분이 묘했다. 어쨌거나 중고서점에서라도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건 좋은 징조일 테지…… 머뭇거리다가 책을 꺼내 들고 표지를 들춰 보았는데…… 거기 언젠가 그에게 소설을 배운 적 있는 어느 만학도의 이름과 구보 자신의 서명이 적혀 있는 게 아닌가. 아무게 님, 좋은 글 쓰세요! 2013년 가을, 구보 드림.

구보는 얼굴이 화끈거려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걸 나라도 사 들고 가야 하는 걸까, 오랫동안 본인의 책을 들고 망연자실 서 있다가…… 그리고 두리번거리다가…… 그 자리에 암전히 다시 꽂아놓고 서점을 나섰다. 그리고, 서점을 나와 천변을 따라 걸으며, 구보는 책의 무게에 대해 생각했다. ▲

원종국 소설가
1999년 진주신문 「가을문예」와 2000년 「작가세계」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소설집 『용꿈』과 「그래도」를 펴냈으며 르포집으로 『그날 그들은 그곳에서』(공저) 등이 있다. 현재 '작업' 동인으로 활동 중이다.



누가 세종의 용안에 손을 댄는가?

'세종, 1446'에 대한 관심과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일까, '명성황후'를 이을 작품이 되길 바라는 이들이 많다. 배우 얼굴에 작품에 맞는 캐릭터를 살려내는 무대 뒤 분장 디자이너도 그중 한 명. 1446년 세종대왕은 한글을 반포했는데 2019년 세종의 용안은 누가 꾸몄을까.

글 편집부 / 사진 최지원
이미지 제공 HJ컬처



입체 도화지, 얼굴에 표현해내는 예술의 세계

'세종, 1446'의 김숙희 분장 디자이너



분장, 독특하고 특별한 분야입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우연히, 운 좋게'라는 표현이 맞을 듯해요. 학교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삽화(일러스트) 채색하는 작업을 하다, 결혼했어요. 분장은 아이 셋을 낳은 후 서른에 시작한 일이고요. 하얀 도화지가 아닌 얼굴일 뿐, 색채작업에 대한 부담이나 어려움이 없었는지 재미있게, 열심히 했던 거 같아요. 뮤지컬 '그리스', '사랑은 비를 타고'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하다 보니 어느덧 20년이 훌쩍 지나갔네요. 이런! 나이가 드러났네(웃음).

20년 동안 많은 작품을 하셨더라고요. 지속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면 무엇일까요?

그동안 300편 넘는 작품에 분장 디자이너로 참여했습니다. 물리적인 편수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돈부터 얘기해요. 많이 벌었겠다고... 하지만 이쪽 분야 아시잖아요. 모든 작품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분장 작업이 금전적으로 책정되어 체계적으로 지급된 자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 많이 일하고 많이 못 받았어요(웃음). 앞서 얘기했듯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작품 하면서 지속할 수 있게 된 거 같아요.

작품이 들어오면 분장 디자이너로서의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연초가 되면 보통 2~30개 작품에 대한 디자인 의뢰가 들어오면서 연간계획이 세팅돼요. '세종, 1446'도 그중 하나이고요. 작업은 대본을 받고 스텝들과 회의하면서 시작되죠. 작품 담당 연출가의 브리핑을 듣고, 제가 사전에 조사한 자료들과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접점을 찾아 스케치 작업에 들어가죠. 시안과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각 캐릭터에 대한 디자인 최종본이 나오면 직접 시뮬레이션합니다. 무대 위에서 리허설 후 다시 점검하는 것까지가 분장 디자이너로서의 작업이에요. 실질적 메이크업은 우리 팀원들이 공연 중 상주하면서 진행하고요.

작품구현 공간이 입체적인 얼굴이라, 쉽지 않은 작업일 거 같은데요?

평면 도화지가 아닌 움직임이 있는 입체적인 얼굴이라, 어떻게 하면 이 배우 얼굴에 작품 캐릭터를 잘 살릴까 항상 고민하면서 구상하죠. 오늘도 새 작품 구상하다 왔어요. 기존 창작극과 달리, '세종, 1446'은 익히 알고 있는 역사적 인물의 시대극이라 얼굴 분장뿐만 아니라 상투 틀고 수염 붙이고, 쪽지고 가체 올리는 것까지, 해야 하고 챙겨야 할 작업이 많았어요.

디자인한 작품이 무대에 올려질 때마다 소회가 남다를 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오직 분장한 배우들의 얼굴에만 온통 신경이 쏠려서 첫 공연은 제대로 못 봐요. 하지만 요즘은 팀원들에게 모니터 차원의 피드백을 위해 무대와 좀 떨어져



어진 곳에서 살펴보죠. 가까이서 보면 지적할 일이 생길 거 같아서요. 모든 아티스트들이 그렇지만, 만족이란 없거든요. 연극, 영화, 뮤지컬, 드라마, 광고 등 안 해본 장르가 없지만, 아직 '만족'이란 말을 입으로 뱉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아티스트로서 만족할 만한 애정과 열정을 가득 담은 작품이 있을 텐데요?

지난 봄에 끝난 뮤지컬 '호프'가 가장 남다른 작품이긴 합니다. 40대 여배우를 70대 노파로 만들어야 했거든요. 늙고 소외된 결핍의 캐릭터라 가발은 반백으로 만들고 주름은 물론, 얼굴에 버짐과 각질까지 표현해야 했는데, 개인적으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작업이었어요. 이 작품의 배우가 내가 디자인한 분장 캐릭터로 무대에서 빛나게 연기하는 모습을 보니, 참 행복했습니다.

아티스트로서 무대 뒤에서의 느낌과 분장 디자인의 매력이라면?

배우들과 함께하는 작업이라 화려해 보이지만 매우 외롭습니다. 팀원들을 책임져야 하는 제 위치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화려한 이면의 쓸쓸함과 외로움이 큼니다. 그 외로움과 싸우는 일이 예술이라고 생각하지만요. 분

장의 매력이라면 역시 '현장감, 살아있는 라이브함'이죠. 그래서 쉽게 놓지 못하는 거 같아요.

이 매력적인 작업은 언제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라면?

팀원이나 후배들에게 일흔까지라고 했지만, 세 손가락을 보세요. 성할 날이 없어요. 내 손가락이 허락하는 시간까지(웃음). 작품이 들어와야 지속할 수 있는 거라 언제라고 단정할 순 없겠네요. 예전엔 큰 작품 위주였는데 오래전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하는 게 중요하고, 작품이란 작은 게 아니라 내가 하면 큰 게 될 수 있다고요. 굳이 계획이라면, 처음으로 돌아가 순수미술이나 동양화를 공부해보고 싶어요. 현실이라는 무게가 버티고 있어서 아직은 생각뿐입니다만.

그동안 함께한 분장팀 직원들을 자식처럼, 자식들을 직원처럼 생각하며 일해왔다는 김숙희 분장 디자이너. 분장이라는 예술적 작업과 동료들과 함께하는 현실적 생계를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지만, 그래도 강조한단다. "그냥 분장이 아닌, 예술이고 창작이니 멋지 있는 작업을 하라"고. 분장 크리에이터이자 아티스트인 그녀가 좋은 어른이자 선배로 무대 뒤 현장에 오랫동안 남아있기를 기원해본다. ▲

김숙희 분장 디자이너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했으며 분장 크리에이터들과 함께하는 SH(숙희네) 대표이다. 뮤지컬, 연극,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장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작품으로 '세종, 1446'을 비롯해 '호프', '잭더리퍼', '삼총사' 등이 있다.

예쁜 봄날 같은 예.봄.은 예술인자녀돌봄센터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술인 자녀들을 위한 시간제 돌봄서비스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2014년 종로구 대학로에 개소한 '반디돌봄센터'에 이어 2016년에는 마포구 망원동에 '예술인자녀돌봄센터(예봄)'를 마련했다. 예술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예쁜 봄날'일 거 같은 예봄센터를 찾아가 보았다.

글 편집부 / 사진 최지원, 예봄센터(사진 제공)



예술인 자녀들을 위한 시간제 돌봄서비스

마포구 망원동 주택가 골목에 마련된 2층 양옥,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 밖을 넘을 걸 들으니 천상 단란한 가정집 풍경이다. 빨간 벽돌 담장에 능소화 덩굴이 드리워진 사이로 '예술인자녀돌봄센터'라는 글자가 콧 박혀 있다. 명판이 없었다면 일반 가정집 주택이었을 이곳은 글자 그대로 예술인 자녀들을 위한 시간제 돌봄센터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요즘 보기 드문 마당이다. 담장 밑 화단을 빼고 잔디로 빼곡했던 자리는 아이들의 흥장난 놀이터가 되었고, 마당 한편에는 방울토마토, 가지 등을 기르는 텃밭도 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노랗고 화사한 실내에 절로 고개가 돌아간다. 1층에는 자유놀이공간과 아이들의 감성을 키울 수 있는 활동실, 주방 등으로 꾸며져 있고 2층에는 예술인 부모들의 소모임 및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공간별 특성에 맞게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장난감을 비롯해 교구나 기자재, 부모들을 위한 양육도서 및 안내자료 등이 비치되어 있다.

"예술인 여러분, 이제 육아 걱정 말고 예술활동 하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 취지에 맞게 매년 이용자들이 늘고 있는 예봄센터는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용시간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24개월에서 초등 6학년까지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다. 예술인들의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당 돌봄 비용은 500원으로 저렴하다. 식사와 간식은 생협을 이용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예술인 부모와 자녀, 모두를 만족시키는 공간

공연예술인 자녀가 많은 대학로 반디돌봄센터와 달리, 예봄센터는 미술과 음악 관련 예술인 자녀들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지역인 마포구를 비롯해 서대문구, 은평구, 영등포구는 물론 종종 경기도 일산에서도 아이를 맡기러 이곳 예봄센터를 찾는다. 하루 돌봄 인원은 15~20명 정도. 주말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계절마다, 그리고 부모들의 예술 활동에 따라 이용 빈도나 패턴이 달라진다고 한다. 2016년 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 운영을 맡고 있는 윤경아 센터장에게 예봄만의 특성에 대해 물었다.

"아이들은 문 열고 들어서면서 '놀러 왔다'고 해요. 아이들 표현대로 이곳은 예술인 자녀들을 위한 놀이공간이에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처럼 같은 연령, 같은 학년의 경쟁적 또래 집단이 아닌 유아부터 초등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연령통합 공간이죠."

아이들은 이곳에서 만난 형이나 누나, 동생을 통해 가족적인 유대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성을 배우고, 각종 놀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창의성을 기른다. 서로 어우러진 공동체 놀이와 활동을 통해 일반 돌봄센터 아이들과 다른, 예술인 자녀들만의 특징도 발견할 수 있어 돌보는 기쁨이 있다



예술인자녀돌봄센터(예봄)의 윤경아 센터장

고. "예술인 부모의 자녀라는 DNA를 무시할 수 없는 거 같아요. 미술적, 음악적 감각이나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지만 블록이나 장난감 놀이할 때면 옆에서 함께하는 돌봄선생님들이 깜짝깜짝 놀래신대요. 그림 그리거나 음악을 들을 때, 그리고 느낌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로요."

지속가능해야 할 예술인 자녀돌봄지원 사업

예술인 자녀들을 위해 예봄센터에서는 토요일마다 특별한 행사도 진행한다. 지역 내 예술단체인 스너글(SNUGGLE)과 함께하는 그림책 기반의 '예술놀이터'와 건강한 먹거리와 식생활 습관을 위한 '요리교실'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예술인 자녀들이 미래의 또 다른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예봄센터의 미래가 궁금해지는 이유다.

"예산이나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예술인 자녀들을 위한 돌봄이 지속될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돌봄센터를 같이 만들어간다는 부모들의 마음까지 보태진다면 더 많은 예술인 부모와 자녀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윤경아 센터장의 바람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예술인자녀돌봄센터가 언제나 예쁜 봄 같은 날이길 기원해본다. ▲

우리 딸 가은이의 유년기, 예봄과 함께했어요

백송이 아트디렉터·스너글 공동대표



아트디렉터이자 서점 스너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백송이 대표. 예봄센터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애정하고 애용하는 곳이다. 올해로 6살이 된 딸, 가은이가 세 살 때부터 다녔으니 남다른 수밖에 없다고. 물리적으로 부모와 친인척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봄은 친정이었다고, 돌봄선생님은 부모였다고 한다.

예봄센터는 토요일이나 방학 때 자주 찾지만, 서점운영이나 그림책 강의 때문에 평일 저녁에도 종종 이용한다. 마당 있는 예봄 집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는 가은이에게 유년의 좋은 기억은 예봄과 함께였다고 말하는 백송이 대표. 예봄 홍보대사(?)이자 예찬자 같다. “예봄은 돌봄선생님들이 바뀌지 않고 오랜 시간 함께해오셔서 아이들 성향까지 잘 파악하고 계세요. 너무 좋죠, 가족 같고.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놀이 공간이라 도시에서 아이를 맡기는 부모로서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요.” 서점운영을 하면서 작품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예봄센터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임을 재차 강조한다. ▲



예술인 자녀돌봄지원 사업

예술인자녀돌봄센터	반디돌봄센터
http://cafe.naver.com/yebomcenter	http://cafe.daum.net/bandicare
주소 서울시 마포구 방울내로11길 15-4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2길 19 1층
전화 02-3143-1919	전화 02-741-0347
운영 화-일요일 11시-20시	운영 화요일~금요일 13시~22시
시간 [1일 전까지 사전예약] 화-토요일 11시-20시 [2일 전까지 사전예약] 일요일 및 공휴일, 화-일요일, 9시~11시, 20시~22시	시간 토요일 9시~22시 일요일 9시~20시 (단, 1일 전 사전예약 시 화-토요일 22~23시 이용 가능)
휴일 월요일 휴무	휴일 월요일 휴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문의_예술인지원팀(02-3668-0200)



구순이 가까워도 그림을 그립니다.
 휠체어를 타고도 무용을 합니다.
 자폐가 있어도 그림으로 말합니다.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연극을 합니다.



예술이기에 가능하고
 예술이기에 아름답고
 예술이기에 위대합니다.



Viva! Artists

그런 예술이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예술입니다.



- 52 KAWF 레시피
- 54 KAWF 데스크
- 56 KAWF 상담실
- 58 KAWF News
- 60 예술인패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따끈따끈한 신메뉴,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응자).
2019년 6월 24일부터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생활안정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너도나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비밀레시피를 함께 파헤쳐보자.

<p>01</p> <p>재료</p> 	<p>02</p> <p>신청</p> 	<p>03</p> <p>심사</p> 
<p>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천천히 따라해보세요.</p>	<p>온라인 접수(아트론 홈페이지), 방문 접수(하나은행) 중 취향껏 선택해주세요. 대출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 필요한 서류도 다르니 확인은 필수!</p>	<p>기본 서류와 조건, 우선순위를 확인 중입니다. 이후 설정된 한도에 따라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가점대상자: 자녀수, 예술인부부, 청년·장애·원로예술인)</p>
<p>04</p> <p>체결</p> 	<p>05</p> <p>진행</p> 	<p>06</p> <p>대출</p> 
<p>금융교육, 약정서 체결, 원본서류 제출, 자동이체 신청을 한꼬집 더해주세요. 약간의 조미료가 더해지면 요리 완성까지 일사천리!(대출승인통보일 포함 5일 이내 완료)</p>	<p>맛있는 요리가 오븐에서 준비되는 동안 이율이나 거치기간을 다시 확인해주세요.(사법사업기간 동안 조기전액상환 가능, 별도의 수수료 부과되지 않음.)</p>	<p>예술인만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완성됐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으로 예술인들의 더 맛있고, 즐거운 창작활동을 응원합니다.(2019년은 시범사업 운용기간으로, 2020년부터 본 사업이 시행됩니다.)</p>

* 신청절차, 제한조건 등의 자세한 내용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응자) 홈페이지(www.artloan.kr)에서 확인하세요.

Tip : 예술활동증명 갱신절차도 잊지마세요!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에 따라 유효기간이 설정되며,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갱신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응자) 사업 또한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예술인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누구나 문턱 없는 예술을 더 멀리, 더 넓게 펼치세요

우리들의 차이와 사이, 함께 이어요

‘예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슬로건이다. 이 슬로건처럼 재단은 동시대 예술인들과 네트워킹하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되려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그 노력의 한 줄기에 장애예술인이 있다. 그리 거창하지는 않지만 세심하고, 꼼꼼하게.

우선 소소한 예로는 장애예술인의 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온라인 제도 이용이 어려운 장애예술인을 위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으로 직접 나가 예술활동증명 현장접수를 받았다. 또한 올해 3월에는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창작디딤돌> 참여를 원하는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및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런 능동적인 복지 서비스를 통해 재단은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장애예술인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단은 장애예술인의 삶을 안정화하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각 사업 공모시 장애예술인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계속해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도록 장애예술인이 함께 참여해 협업할 수 있는 창작사업 등을 꾸준히 기획, 실시하고 있다.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예술인의 직업적 역량을 개발하고 기업·기관·지역 등과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적극적 예술인 복지사업으로,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팀을 이뤄 기업·기관·지역이 가진 이슈를 예술적 관점으로 풀어보며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시키고 있다. 특히 예술인과 교류, 교감하면서 예술적 역량을 좀 더 높이길 원하는 다양한 장애관련 기관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로)>의 문을 두드렸다. 이런 꾸준한 예술교류를 통해 다양한 영감이 깃든 장애예술인의 창작물들이 세상 속으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에는 30cm 자로 펼쳐내는 독특한 화풍으로 널리 알려진 자폐장애인 한부열 작가가 2019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로)> 기획사업에 참여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장애인으로는 처음 이 사업에 참여하며, 팀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 5명과 정기적으로 협업하며 장애예술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QR코드로 확인해주세요!



함께 창작하는 삶 만들어요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창작디딤돌>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창작디딤돌>은 수입이 불규칙한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예술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매년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 올해는 2018년보다 1,000명 늘어난 총 5,500명으로 확대되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 각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배점제에 따라 선정하는데, 이때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예술인에게 1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QR코드로 확인해주세요!



함께 예술로 사는 세상 만들어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은 지난 6월 24일부터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서민정책금융에서도 사각지대에 위치한 예술인의 어려운 현실과 예술의 공공재적 특성 등을 고려해 도입된 예술인 대상 용자 제도이다. 현재는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등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자금을 최고 500만 원 이내 연 2~3%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월간 단위로 대출절차를 진행하는데,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선정을 한다. 이때 대상자 선정시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한 장애예술인에게는 가점을 주고 있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장애예술인 중 긴급하게 융통해야 할 생활자금이 있다면 꼭 한번 살펴보기길 권한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QR코드로 확인해주세요!

예술인이 묻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답하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동안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혹은 사소해서 못했던 질문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자세히 답변해드립니다.

Q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입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는데 간소하게 하려고 해도 목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알아보니 일반 은행에서는 불가하더군요. 그러던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들을 위한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자금으로 융자를 받고 싶은데 저처럼 수입이 일정치 않은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예술인들은 직업적 특성상 프리랜서 비율이 높기에(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 76%, 2018 예술인 실태조사), 대출요건이나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예술인들을 위한 융자 제도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드디어 올 6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어 생활안정자금 상품이 먼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상품은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기타 긴급 생활자금 용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출한도는 500만 원 이내입니다. 문의하신 결혼자금 용도로 융자를 신청하시면 되고, 혼인신고 전이시면 예식장 계약서 사본, 청첩장, 비용 영수증 중 1가지 증빙 자료를, 혼인신고를 마치셨으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기본적인 필수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개인정보동의서 등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홈페이지(www.artloan.kr)에서 확인해주세요.

문의: 02-3668-0238-9

Q 몇 권의 시집을 발간한 시인입니다. 시만 쓰고는 먹고 살 수 없어 여러 일을 함께 해왔는데, 얼마 전 폐암 판정을 받았 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여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준다고 동료 시인 이 알려주더군요. 저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우리 재단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하셨고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역별 재산 기준 이하하시면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소득자산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경 제상황에 비해 치료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등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해 드리 고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중심의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간병비, 보장구구입비, 재활치료비, 외 래진료비 등을 지원해 드리오니 재단으로 문의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료비는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예 술인에게 직접 지원은 불가하오니 이 점 꼭 양지해 주세요. 2019년 사업은 2020년 4월 10일까지 청구분에 한해 지원됩니다. 의료비 신청 기준 및 필요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를 참고해 주세요.

문의: 02-3668-0200, medic@kawf.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성북구노동권익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과 성북구노동권익센터(센터장 이오표)가 9월 3일 화요일, 체불임금 문제 등 예술활동의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법률지원을 통한 실효적 구제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성북구노동권익센터는 ▲‘예술인 신고’ 신고인의 근로자성 확인 및 체불임금 조사 및 자문 ▲고용노동부 신고 시 법률지원 ▲체당금 청구 지원 ▲양 기관의 불공정 관련 프로그램 참여 ▲양 기관의 공익사업 및 홍보활동 등을 위한 상호협력력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인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술인들이 복잡한 체당금 신청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데 의미가 있

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희섭 대표는 “그동안 우리 불공정행위신고상담 센터에서 예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제도적·행정적 한계로 미치지 못했던 영역이 있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예술인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체불임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한국심리학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이 8월 22일 목요일, (사)한국심리학



회(이사장·회장 조현섭, 총신대 교수)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사)한국심리학회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심리상담을 통해 심리학자들로부터 하여금 예술인의 정신건강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심리학자의 역할 및 위상을 높인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2019 제73차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심리상담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심리상담과 집단 심리상담, 예술인 힐링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개인 심리상담의 경우 재단에서 위촉한 전국 32개(19년 기준) 전문심리상담 기관에서 최대 12회까지 1:1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심리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14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로 매년 지원을 확대(14년 81명, 15년 223명, 16년 549명, 17년 734명, 18년 648명, 19년 8월 22일 기준 598명 예술인 지원)해 오고 있는데, 해가 갈수록 예술인들의 신청과 호응이 높아져 올해 개인 심리상담은 신청 3달 만에 조기 마감되었다.

정희섭 대표는 “예술인은 직업적 특성상 심리적인 압박감과 어려움이 심한 직종 중 하나이다.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예술인들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신 (사)한국심리학회와 심리상담가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재단은 앞으로도 심리상담이 필요한 예술인들에게 충분하고 폭넓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 하반기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저작권 및 계약 실무 교육>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공동 주관하는 2019 하반기 <문화예술인 대상 권익보호 교육-저작권 및 계약 실무>가 9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공연·문학·시각미술·만화·대중음악 등 총 5개 분야의 저작권 개념과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한 것으로, 장소는 서울여자대학교 대학로캠퍼스에서 진행되었다.

▲9월 23일(월) 공연 분야(대상: 작가, 배우, 무용수, 음악감독 등) ▲9월 24일(화) 문학 분야(대상: 시, 소설 등의 문학 작가 등) ▲9월 25일(수) 시각미술 분야(대상: 미술작가(회화, 설치 등)와 일러스트레이터 등) ▲9월 26일(목) 만화 분야(대상: 웹툰 작가, 스토리 작가 등) ▲9월 27일(금) 대중음악 분야(대상: 작사·작곡가, 연주자, 가수 등)로, 저작권 과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계약 실무 과정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었다.

2019 하반기 <문화예술인 대상 권익보호 교육-저작권 및 계약 실무>는 예술계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작권 및 계약문화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련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실무 대응능력을 배양하고자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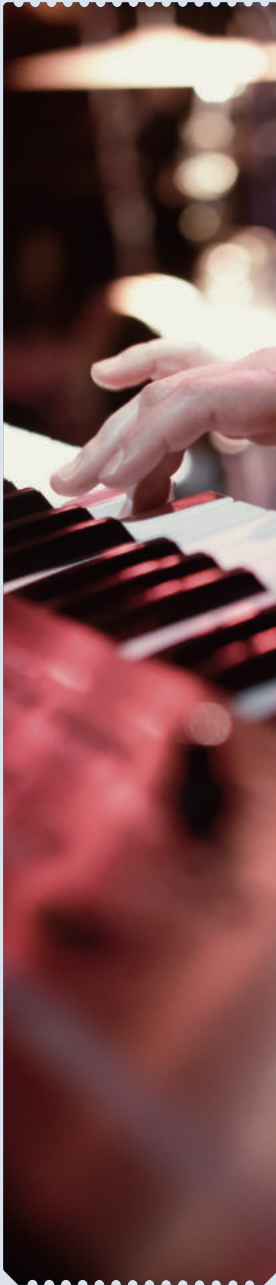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하반기 <예술인을 위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진행**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나윤경)이 2019 하반기 <예술인을 위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한다.

서울에서 3회(10/28(월), 11/4(월), 11/11(월)), 부산에서 1회(10/24(목))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상반기에 이어 예술인들이 성평등 관점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획되었다.

서울 교육은 1차 ‘성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 및 개념 이해’(이명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2차 ‘문화예술계 현장의 실태와 창작자로서 영향력’(임지연 작가/문화예술계 맞춤형 성폭력·성희롱 전문가 1기), 3차 ‘성폭력 관련 법·제도와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를 만들기 위한 실천행동’(천정아 변호사/법무법인 소헌)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여자대학교 대학로캠퍼스 아름관 202호에서 진행된다.

특히나 하반기에는 지역 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산문화재단과 함께 <부산지역 예술인을 위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성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 및 개념이해’를 주제로 배우이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문화예술계 맞춤형 성폭력·성희롱 전문가 1기로 위촉된 김보은 강사(배우, 활동가/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가 진행, 10월 24일(목) 부산문화재단 한성1918 부산생활문화센터 2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재단 관계자는 “상반기 교육에서는 여성주의의 이해라는 이론을 학습하며 성폭력 예방의 필요성을 배웠다면, 하반기 교육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젠더 의식을 가진 예술인의 영향력, 성평등적 관점의 예술활동을 위한 실천행동에 대한 강의를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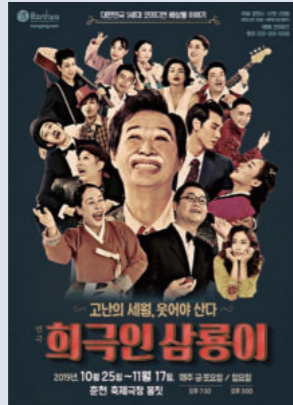
Volume.32

ART PASS

Artists Welfare Magazine



artpass.kawf.kr



축제극장 몸짓

연극 <희극인 삼룡이>

2019. 11.14(목)
전석 2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50%



부평아트센터

뮤지컬 <연노운>

2019. 11. 7(목)~11. 9(토)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50%(본인만)



영화의전당

무성연극 <안네프랑크>

2019. 11. 15(금)~11. 16(토)
전석 2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50%(본인만)



예술의전당

국립현대무용단 <검은 돌: 모래의 기억>

2019. 11. 1(금)~11. 3(일)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B석 1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30% (공연예술인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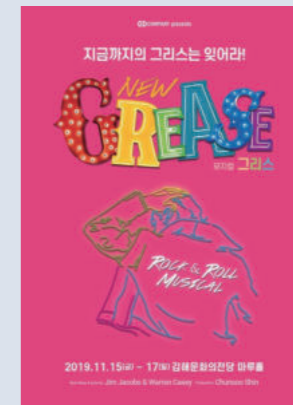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김덕수의 침묵이 만들어 내는 소리 3

2015. 11. 26(화)
전석 1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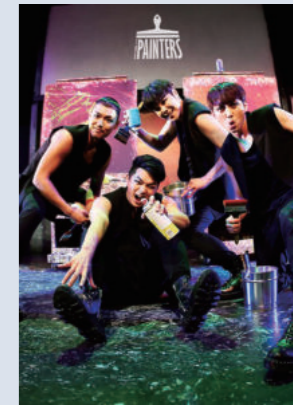


김해문화의전당

All New! 뮤지컬 <그리스>

2019. 11. 15(금)~11. 17(일)
R석 100,000원
S석 80,000원
A석 6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30%(본인만)



통영시민문화회관

뮤지컬 <페인터즈>

2019. 11. 23(토)
S석 20,000원
A석 1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30%(본인만)



서울남산국악당

연희집단 The 광대 -광대 탈놀이 <판소리 판>

2019. 11. 22(금)~11. 23(토)
전석 3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50%(본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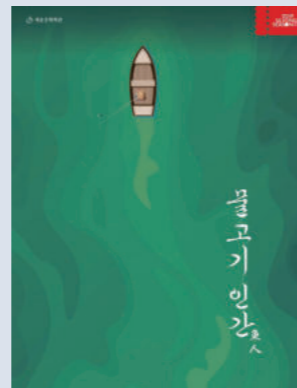


두산아트센터

연극 <인정투쟁: 예술가편>

2019. 10. 29(화)~11. 16(토)
전석 35,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17,500원 (공연예술인 할인)



세종문화회관

연극 <물고기 인간>

2019. 11. 1(금)~11. 17(일)
전석 3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40% (공연예술인 할인)



화성아트홀

예술무대 산 <손 없는 색사>

2019. 11. 23(토)
전석 15,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30%(본인만)



롯데콘서트홀

관현악시리즈 II <격조, 한국의 멋>

2019. 11. 26(화)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30%(본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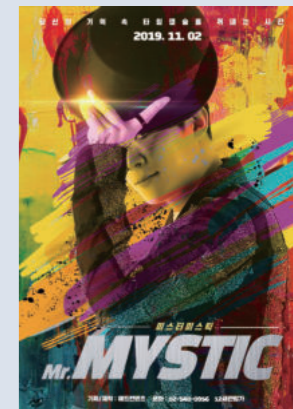


통영국제음악당

야나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통영

2018. 11. 17(일)
R석 8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B석 2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30%(본인만)



이수아트홀

연극 <미스터 미스틱>

2019. 11. 02(토)~12. 29(일)
전석 3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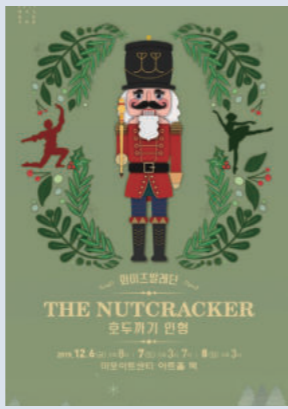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
연극 <에쿠우스 EQUUS>
2019. 9. 7(토)~11. 17(일)
R석 60,000원
S석 4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50%



학전블루 소극장
뮤지컬 <지하철 1호선>
2019. 10. 29(화)~2020. 1. 4(토)
전석 6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48,000원(본인만)



북촌아트홀
뮤지컬 <사랑을 말해>
2019. 9. 20(금)~12. 28(토)
전석 4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50%



마포아트센터
와이즈발레단 <호두까기인형>
2019. 12. 6(금)~12. 8(일)
R석 60,000원
S석 50,000원
A석 4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40%(본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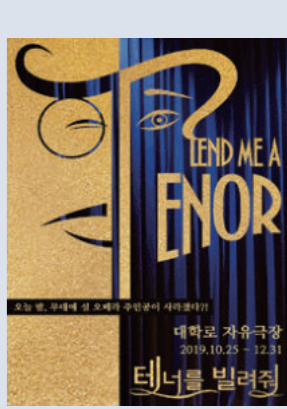
천안예술의전당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2019. 12. 24(화)
R석 100,000원
S석 80,000원
A석 60,000원
B석 4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30%(본인만)



대학로 노을소극장
연극 <두 병사 이야기>
2019. 11. 8(금)~12. 29(일)
전석 3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10,000원



대학로 스타시티
연극 <롬넘버13>
2016. 1. 12(화)~오픈런
전석 3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10,000원(본인만)



대학로 자유극장
연극 <테너를 빌려줘>
2019. 10. 25(금)~12. 29(일)
전석 55,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20,000원(본인만)



예술의전당
국립오페라단 <헨젤과 그레텔>
2019. 12. 5(목)~12. 8(일)
R석 120,000원
S석 100,000원
A석 80,000원
B석 50,000원
C석 30,000원
D석 1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40%(본인만)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콘서트 오페라 <라 보엠>
2019. 12. 13(금)~12. 14(토)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B석 2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20%(본인만)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2019. 12. 6(금)~12. 8(일)
VIP석 100,000원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B석 1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20%(본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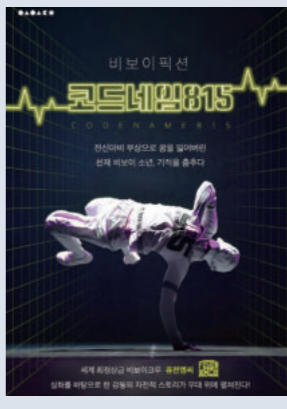
세종문화회관
서울시합창단 <명작시리즈III>
2019. 12. 17(화)
R석 40,000원
S석 2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30%(본인만)



소마미술관
전시 <안녕, 푸>
2019. 8. 22(목)~2020. 1. 5(일)
전석 15,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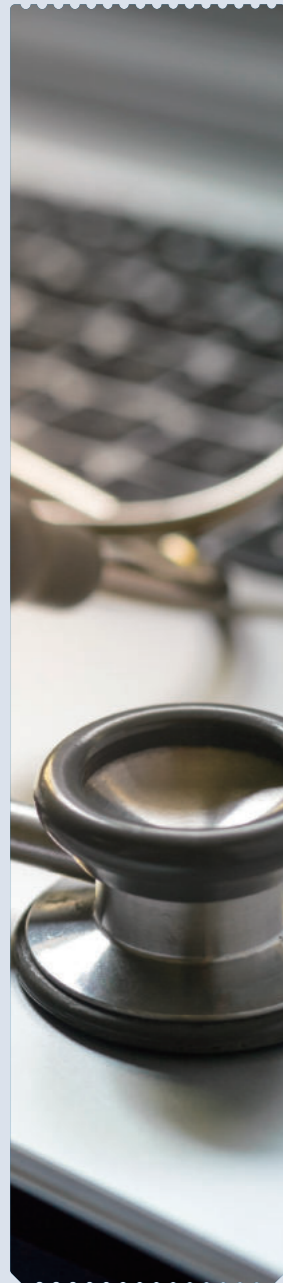
호반아트리움
전시 <아트인더북 (ART in the Book)>
2019. 7. 19(금)~2020. 2. 9(일)
전석 8,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30%(본인만)



의정부예술의전당
비보이픽션 <코드네임815> -의정부
2019. 11. 9(토)
전석 1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30%



오산문화예술회관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
2019. 11. 12(화)~11. 13(수)
전석 2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20%(1매)



Volume.32

**ART
PASS**
Artists Welfare Magazine



artpass.kawf.kr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예술인 건강 혜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근로복지공단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예술인을 위한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예술인패스 소지자가 혜택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 할인(공단 직원 수준으로 제공, 일반수가 대비 약 50% 내외), 독감예방접종 할인, 업무상 특별진찰 시 승인 전 치료 서비스 제공(산재 신청 시 승인 전이라도 공단 소속 병원에서 치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 정보(전국 7개 병원)

연번	병원명	소재지	건강관리센터 정보
1	인천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6 (구산동)	032)5000-222 www.kcomwel.or.kr/incheon
2	안산병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 (일동)	031)5001-112 www.kcomwel.or.kr/ansan
3	창원병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 (중앙동)	055)2800-481 www.kcomwel.or.kr/changwon
4	순천병원	전남 순천시 조례1길 24(조례동)	061)7207-162 www.kcomwel.or.kr/suncheon
5	대전병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37 (법동)	042)6705-196 www.kcomwel.or.kr/daejeon
6	태백병원	강원도 태백시 보드미길 8(장성동)	033)5803-153-4 www.kcomwel.or.kr/taebaek
7	동해병원	강원도 동해시 하평로 11(평릉동)	033)5303-251 www.kcomwel.or.kr/donghae

더 많은 생활 속 할인은 예술인패스 홈페이지(artpass.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영화, 방송, 전통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예술인패스 제도를 시행합니다.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인패스를 신청하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예술인패스 모바일 페이지(first.kawfartist.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2-3668-0200, artpass@kawf.kr



예술가의 안전벨트 예술인 산재보험

✔ 예술인 산재보험을 통해 직업 예술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활동을 멈추지 않도록
보험료의 50-90%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서류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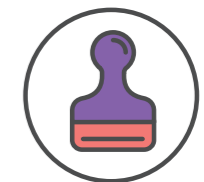
계약서
가입신청일 현재 유효한
(보수목적의) 예술활동 계약서

통장사본
보험료 지원금 환급 계좌



온라인 가입 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입 완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가입대행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가입 승인

